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경험

오정아, 전용호, 김윤영

2023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김운영 전북대학교 교수

발 간 사

충남도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貴 기관으로부터 현안 의뢰받은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12.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2022)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우리사회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핵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충청남도 자살률 변화추이를 보면,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다른 연령보다 중장년의 자살률은 증가하였음(오정아, 2022). 이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함
- 상황이 이러함에도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음. 일부 내용이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언급이 되었으나, 중장년 1인가구의 문제에 대한 실태와 심층 분석은 충분하지 않음. 즉, 충남도내 중장년 1인 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족하고 이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발굴의 한계를 가져옴
- 이에 이 연구는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해 중장년 1인가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경험의 삶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 약

2) 연구범위 및 과업수행절차

(1) 시·공간적 범위

- 행정데이터 범위: 2023년 전후 3년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중장년 1인가구의 심층면접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전 생애에 걸친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함
-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전체
- 대상 범위: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

(2) 과업수행절차

단계	구분	추진일정	연구내용
연구설계	연구방향 설계	5월-6월	▪ 사회적 고립 개념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심의 및 착수보고회
문헌고찰	선행연구 고찰 심층면접 질문지 개발	6월-7월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반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조사연구	심층면접 대상자 섭외 및 진행	7월-9월	▪ 연령과 지역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 섭외 ▪ 1:1 심층면접 진행
	국가통계데이터 활용, 중장년 1인가구 분석	8월-11월	▪ 충청권 중장년 1인가구 비교 ▪ 충남도 1인가구 현황 분석
	심층면접 자료 전사 및 분석	10월-11월	▪ 심층면접 자료 전사 ▪ 사회적 고립 경험 분석
정책 발굴	정책간담회 및 정책 발굴	11월	▪ 정책간담회 - 학계-공무원 등 참여
최종 보고회 및 발간	최종보고회	12월	▪ 최종보고회 진행 ▪ 전문가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발간	12월	▪ 보고서 수정 보완 ▪ 최종 보고서 발간 ▪ 완료계 제출

2. 사회적 고립의 개념 및 중장년 연령범주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고립은 개인의 주관적 단위부터 넓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음. Wang 등(2017)은 사회적 고립, 고독,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자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등으로 고립을 구분하였고(오정아 외, 2022), 일각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객관성과 주관성, 자발성과 비자발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Townsend, 1957, 1974; Vincenzi & Grabosky, 1987; 김춘남 외, 2018; 박선희 & 최영화, 2020; 오정아 외, 2022 재인용)
- 이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수준이 낮고, 경제적 빈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자원이 없으며, 가족이나 친인척, 지역사회에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거나 받는 등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자 함

2) 중장년 연령 범주

-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9세으로 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노인복지기본조례」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또는「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년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40세부터 49세 연령이 청년기와 중장년 어느 시기에 속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
- 이에 본 연구는 학계에서 제시하는 생애주기별 분류기준과「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와「충청남도 노인복지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양 조례 어느 기준에도 속하지 않은 연령에 속하지 않는 40세부터 64세 연령을 중장년으로 명명하고자 함

요 약

3. 충청남도 및 타지역 중장년 지원 정책

1) 충청남도 중장년 지원정책

- 2023년 충청남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충남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장년 1인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정책에는 도내 ‘1인가구 사회관계망 개선 지원’ 사업과 ‘충남형 1인 가구 정책사업 발굴 사업’이 있고, 여성가족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음

〈표 2-1〉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충청남도	1인가구 사회관계망 개선 지원	▪ 도내 생애주기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생애주기별·신노년·이혼 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12개소) ▪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자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4개구)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9월)	생애주기별 (중장년) 1인가구
	충남형 1인가구 정책사업 발굴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3~’27)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정착화 ▪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내용: 1인가구 분야별 불편사항 해소방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	충남도민 (1인가구 포함)

자료: 충청남도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1) 충청남도 북부권 지원정책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의 북부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	내용	대상
천안시	1인가구 “공감·동감”마음돌봄 지원사업 추진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관계성 회복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및 일반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건강가정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시범 실시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모종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 문화기반시설 확충 - 신중년·명품인재 양성공간조성 · 설계공모, 실시설계 착수 및 실시설계 준공	중장년 1인가구

요 약

구분	사업	내용	대상
서 산 시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	1인 가구 및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고독사와 은둔형 고립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망을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 고위험군 중장년층 가구를 시스템에 등록(780명)하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음성통화 발신(수신)기록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자 감지 --> 읍면동 통보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당 진 시	여성 안심 프로젝트 제공	- 여성 대상 범죄 및 1인 여성 가구 증가에 따른 불안요인 증가로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대책 강화 ☞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지역 10개소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 년(퇴직자)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교육훈련) 직업교육, 역량 진단, 취·창업 정보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제공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1상담,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지원	만 40세 이상의 신중년, 퇴직자(예정) 등
	중장년기술창업 센터 운영	- 지역내 기술·경력, 인프라, 전문성을 보유한 3년 이내의 만40세 이상 중장년(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지원 ☞ 창업자 발굴 및 선발,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사업 추진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자살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생명사랑 운동	자살고위험군(1인가구 등) 발굴 및 선제적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사회적 자살예방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당진시민

[북부권 중장년 지원사업 사례]

▶ "1인가구 지원사업" (천안시)

- 천안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함



출처: 충청일보(23.12.28)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사업 본격 추진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82>

▶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센터" 운영 (당진시)

-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무실, 코워킹 공간, 비즈센터, 창업전용 입주 공간, 휴게실 등을 갖추고 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중장년 세대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임



출처: 1. 연합뉴스(2019).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유치,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발굴
<https://v.daum.net/v/20190430092924754>
 2. 쿠팡뉴스(2020).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우수 A등급'에 선정
<https://v.daum.net/v/20210303220303544>

요 약

(2) 충청남도 서해안권 중장년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태안군	1인가구 취약계층 안부 살핌 서비스운영	• 전력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소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될 시 복지담당자에게 통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전문강사를 통한 나만의 건강밥상 및 TCI(성격 및 기질)검사 실시	중장년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	•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보호사, 실버인사놀이 지도자 자격증 취득과정	태안군 거주 은퇴(예정)자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제2의 인생 리스타트 프로그램	• 관내 귀농귀촌인 등 40~60대 1인가구 10명을 상으로 여가활동과 자기돌봄 시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중장년1인가구
보령시	신중년 생애경력 설계 인생3모작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컨설팅을 통한 안정화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장년층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민수요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령시민 (중장년포함)
	국가 암 및 건강검진 사업	•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폐암, 일반검진, 성인병질환, 전립선 암검진, 유방초음파 검진 실시	중장년 저소득층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지체계 강화	지역주민 및 자살고위험군 (중장년포함)
서천군	서천군 인구정책 실행기반 개편 및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 시행 등	중장년층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기회와 품격이 있는 중장년층 정착지원 체계 마련(신규)	• 서천군 중장년 조례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 체계 마련 • 분야별 특화 시범사업 발굴·추진 및 중장년 참여 네트워크 구성 • 귀농귀촌, 돌봄 및 양육관련 지역공동체와 중장년층 협업체계 구축	중장년층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1인가구 셀프 방어막 구축 지원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키트 지원	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α 실 단독 세대 여성 1인가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로 건강 100세 마을 조성 및 건강향상	중장년층 (1인가구 포함)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사업 협력사업(생애) 보고서	• 50~60대 남성 1인가구의 고립 및 관계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50~60대 남성 1인가구

요 약

(3) 충청남도 내륙권 중장년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공주 시	건강·다문화가정 지원	•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 실태 전수조사 실시	만 40세~64세 중장년 및 만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예산 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함	1인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족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 원룸·다세대주택 등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방범 장치가 미흡한 12세대를 선정해 현관문 보조키,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등을 제공	만 40세~66세(공통), 군경력 20년 이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신중년(만 50세 이상~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추진	만 50세 이상~70세 미만 중장년층
	건강수명은 혈관건강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자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30대~50대 중장년 직장인
홍성 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 50~60대 남성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관내 50~60대 중장년 1인가구 등
	1인가구 찾기 1인가구 등록제사업	• 혼자서 생활하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맞춤형 활동 제공	홍성군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가구 독립생활 응원프로젝트 '마음선물'	• 중장년 1인가구 독립생활 응원프로젝트 '중장년 1인가구 응원키트- 마음선물' 프로그램 • 중장년 1인가구 달콤베이킹 클래스 프로그램	중장년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중장년 1인 가구 홍성 투어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홍성 투어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근력증진 케어푸드 지원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중장년 1인가구 근력증진 케어푸드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분야별 소모임 활동	• 중장년 1인가구 분야별 소모임 활동 - 나의 첫 번째 취미생활, 손뜨개, 나의 첫 어반스케치, 이야기 별다방 소모임	중장년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청양 군	1인가구 지원 사업 '청양일가'	•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유지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요 약

(4) 충청남도 금강권 중장년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논산시	“꽃중년 요색남(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도전 프로그램”	▪ 초고령화 사회에서 스스로 요리하기 힘들어하는 중년남성에게 맞춤형 건강요리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 조성	중년남성 30명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 1인 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과 자조 모임 지원	1인 가구
금산군	사각지대 없는 금산형 맞춤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 『금산마음쓰담톡』 : 복지사 각지대 카카오톡 상담 ▪ 콜 톡톡문안서비스 : 고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발신 기록이 없는 경우 안부확인 실시 ▪ 『희망연결고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MOU 협약 2023. 상반기 ☞ 지역복지 자원관리 체계화로 금산형 나눔체계 구축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봉사단 발굴 및 운영	금산군 관내 취약계층(1인가구 포함)
	효율적인 산림서비스 인력 운영관리	▪ 관내 중장년층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제2의 인생 지원과 더불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기여 ☞ 사유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운영,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신중년 일자리 목공지도사 운영	중장년층
부여군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센터 운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성화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1인 가구, 가족, 부부 등) 상담 지원, 가족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족 등 부여군민

[금강권 중장년 지원사업 사례]

▶ “꽃중년 요색남” 중년 남성 요리교실(논산시)

- 논산시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미역국, 된장찌개, 장조림 등 요리와, 건강 및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출처: 대전일보(2023.8.3.). 논산시의 꽃중년... 중년 남성 요리교실 인기
<https://v.daum.net/v/20230803201234391>

▶ “금산마음쓰담톡 운영” (금산군)

- 카카오톡 채널에 접수된 어려운 이웃의 제보나 사항 등을 주민복지지원과 검토 후 관련부서 및 각 읍면에 전달돼 심층 상담을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



출처 : 충청일보(2022.9.14.). 금산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금산마음쓰담톡' 운영(<https://www.ccdailynews.com>)

요 약

2) 타 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사례

(1) 경기도

- 경기도는 2022년 12월 1인가구 지원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6개 영역(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의 37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구분	사업내용
사회관계망 형성 분야	■ 중장년 수다살롱, ■ 청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건강돌봄 분야	■ 반려동물 지원 확대,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1인가구 공동체마을 공동부엌, ■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생활안정·주거·안전 분야	■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 경기도 어르신인생노트 사업, ■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 보급

[경기도 중장년 지원사업 사례]

▶ “경기도 1인가구 포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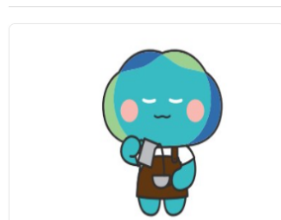
- 경기도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되는 경기도」의 비전하에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이 포털을 통해 경기도 내 1인가구 지원정책과 사업을 소개, 각 지역별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국민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음



▶ “수다살롱” (경기도)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
- 가족센터 13개소 (수원, 용인, 부천, 안산, 파주, 의정부, 광명, 하남, 이천, 안성, 포천, 가평, 연천)
- 중장년(40세~64세) 1인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가구)

중장년 수다살롱



출처: 경기도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1ingg/main.do>)

요 약

2) 타 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사례

(2) 서울시

프로그램	내용	대상
불편 해결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 강화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Door to Door)	1인가구 등 시민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 지원	서울시 실가주 시민(1인가구 포함)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지원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일상회복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서울시민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요리교실'과 참여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	중장년 1인가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지원정책 안내를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 (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안심마을 보안관은 2인 1조로 동네를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으로, 1인가구, 원룸, 모자 세대가 밀집한 주거 특성을 지닌 지역의 순찰 활동을 지원	주거 안전이 취약한 1인가구 밀집지역
불안 해소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심야 시간 귀갓길 안전 취약계층의 안심귀가 지원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안심귀가 지원-「서울 안심이」 앱 운영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 실시로 긴급상황 대응 및 경찰 출동 지원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안심이 앱을 활용한 안심귀가 택시서비스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귀갓길 안심귀가를 위해 택시 승·하차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지원	* 이용자: 서울시민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1인가구라 직접 만나는 택배 이용이 부담될 경우, 안심택배함으로 보다 안전한 비대면 택배 이용 지원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지원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음식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연계 모니터링)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지원)	1인가구, 1인점포 및 스토킹 피해자 등

요 약

2) 타 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사례

(2)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내용	대상
• 불만 완화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복원으로 고립·고독감 해소 지원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치구 내 1인가구가 흔히 겪는 5대 어려움(건강, 안전, 빈곤, 주거, 외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증진, 안전확보, 취미여가, 경제교육, 주거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상담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 예비 1인가구
1인가구 쌍글빙글 경제교육	1인가구의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무관리와 부채관리 총 2개 분야 강의 및 1:1 컨설팅을 통해 1인 가구 경제자립 및 노후관리를 지원	서울시 1인가구
마주봄 매니저(뉴딜일자리) 운영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생활안심 코디네이터 '마주 봄, 매니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총 30명
서울 1인 가구 포털 '쌍글빙글 서울'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정보를 지도기반 서비스에 의해 한 눈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9.1. 오픈하였으며, 서울시 1인가구의 정책·정보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임	서울시 1인가구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1인가구라 직접 만나는 택배 이용이 부담될 경우, 안심택배함으로 보다 안전한 비대면 택배 이용 지원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 ▶ 전직 군인, 경찰, 자율방범대 등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보안관 인력 총 63명이 순찰활동지원
 - 순찰 시간 야간시간대 21:00-02:30
 -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 시민 추천으로 선정

- ▶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에게 **‘안심장비 3종’**을 지원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 여성 1인 점포 ‘안심점포’ 무선비상벨 지원

출처:

- 아이뉴스24(2023.9.4.). 서울시, ‘안심이앱’ 기능 강화한다. <https://v.daum.net/v/20230904114054059>
- 조선비즈(2023.9.20.). 안심마을 보안관, 다음달부터 신림동 추가... 무차별 범죄 불안 줄인다. <https://v.daum.net/v/20230920151622796>
- 뉴스 1.(2022.3.24.). 서울시,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대상자 ‘안심장비 3종 지원’ <https://v.daum.net/v/20220324111518244>

요 약

2) 타 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사례

(3) 부산광역시

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내용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심리정서지원(상담)	▪ 1인가구의 고독·고립 문제, 관계 갈등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돌봄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 일상돌봄: 스스로 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프로그램 등 ▪ 감정돌봄: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한 감정코칭,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 긴급돌봄: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등
	사회적관계망 지원 (동아리 활동)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구군별 프로그램 상이)	▪ 자조모임, 문화활동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 지역사회연계: 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로깅(쓰레기줍기활동) 등 ▪ 1인 여성가구 안전물품지원 등

□ 중장년 1인가구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중장년 1인가구 자조모임 '솔로 5060'	중장년 1인가구	▪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 완화와 이웃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중장년 1인가구 밀키트 지원사업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 영도구 저소득 중장년층 1인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 2회 밀키트 배달
중장년 여성 1인가구 프로그램 '온침표'	중장년 여성 1인가구	▪ 소도구 필라테스, 재무교육, 위시바 만들기 등
'함께살'을 위한 '무드등 & 비타민' 지원 사업	저소득층 중·장년 1인가구	▪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이 있는 만 40세 부터 만 64세 중장년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별 경험 1인가구 '나로서기'	사별 경험 중장 년 1인가구	▪ 명상, 페인팅 체험, 바디바 만들기 및 나눔 등

[중장년 1인가구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사례]

· 부산 동구 수정1동, 중장년 1인 가구 '함께살'을 위한 '무드등 & 비타민' 지원 사업

- 정서적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무드등과 비타민을 전달



경상도 뉴스 <http://www.ynews.kr/news/view.php?idx=150885>

· 금정구, 중장년 1인가구 자조모임 '솔로(Solo) 5060'

- 솔로(Solo) 5060 자조모임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심리·정서적 지지망의 형성이 필요한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우선 대상으로 지역 이웃과의 관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30810002900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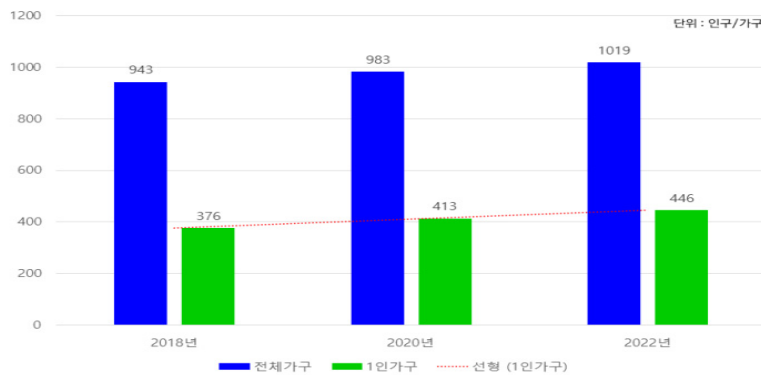
요 약

3. 중장년 사회적 고립 및 1인가구 특성과 욕구

1) 중장년 1인가구 현황과 사회적 고립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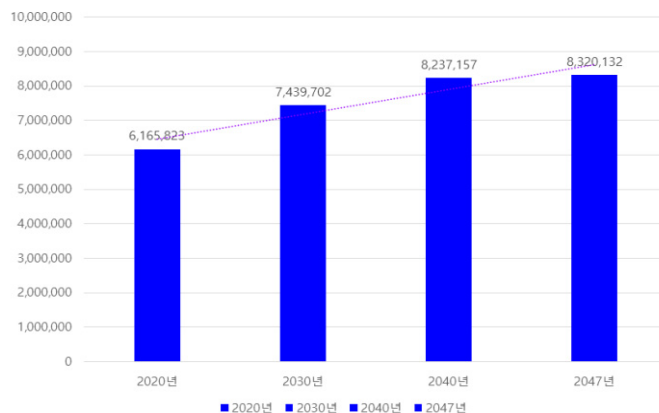
(1) 충청남도 1인가구 현황

- 2018년 충청남도 1인가구는 전체 인구 전체 가구의 약 39.8%였던 것에서 2022년에는 43.7%로 증가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 통계(2022년 기준)
[충청남도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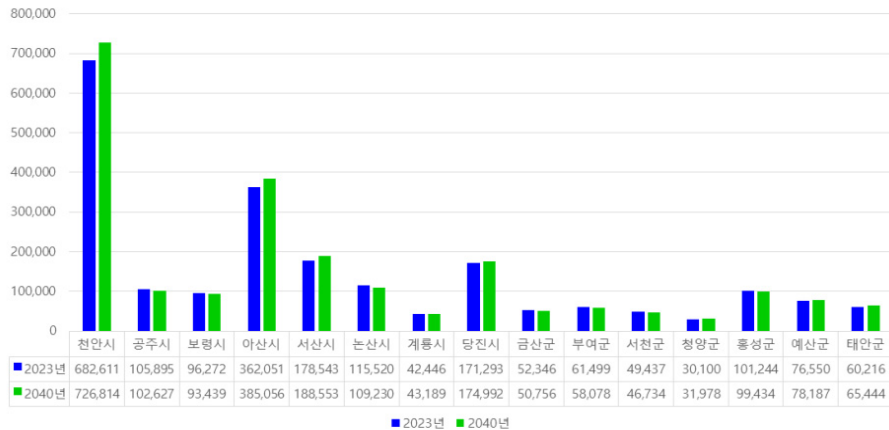
- 연령별 1인 가구 증가추이를 보면, 40세 이상 64세 연령의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보다 낮지만 39세 이하 청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년), 가구주의 연령,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전국)]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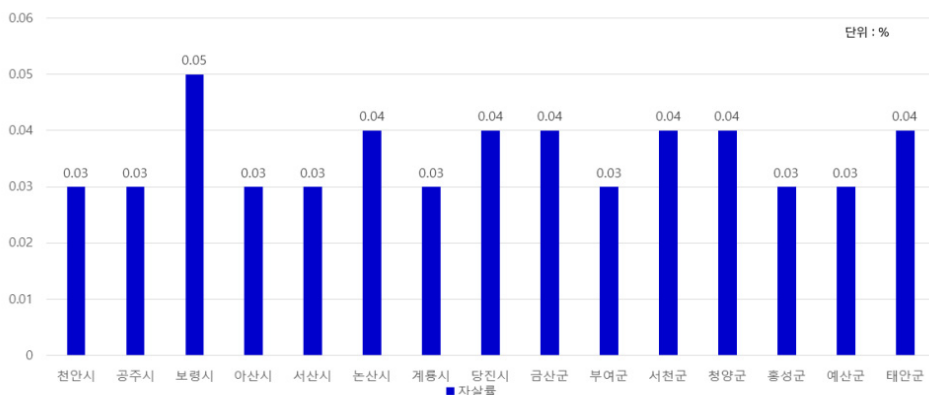
- 충청남도 시군의 중장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등 충청도 북부권 지역이 다른 시군보다 중장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2020~2040년), 가구주의 연령-시/군/구
[충청남도 시군별 중장년 장래인구 추계]

(2)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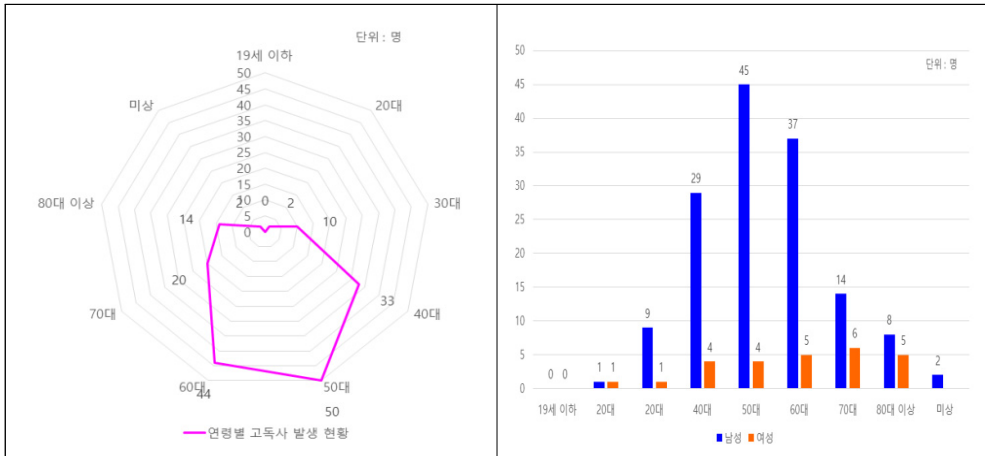
- 충청남도 시군의 인구대비 자살률을 보면, 보령시 자살률이 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논산시와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의 지역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대비 0.4%비율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2.12.기준) 데이터 저자 재분석
[충청남도 시군 자살률]

요 약

- 보건복지부(2022)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충청남도 중장년층의 자살에 의한 고독사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출처:보건복지부(2022). 고독사 실태조사 재구성

[연령별 고독사 현황]



출처: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 저자 재분석

[충청남도 중장년 자살 총동 사유]

2) 중장년 1인가구 특성과 욕구분석

(1) 분석자료

- 한국노동패널데이터(KLIPS)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가구와 그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이 데이터는 매년 1회씩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과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한국노동패널데이터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시간 경과에 따른 추적: 매년 동일한 참가자와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에 1인 가구의 시간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15차 2012년부터 최근 24차 2021년(2022년 발표)까지 분석시기에 포함하고자 함

(2) 분석방법

- 이 연구에서 분석 목적은 각 년도별 총남 중년 1인가구의 여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각 시점의 샘플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하는 것임. 분석 도구는 Stata 17.0 Be를 사용하였음

〈 변수 설명 〉

변수명	세부사항
성별	1. 남자, 2. 여자
교육	1. 고졸 미만,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혼인상태	미혼 2. 기혼유배우 3. 기혼무배우
주택형태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타
ILO 기준 경제활동	1. 취업자 2. ILO 기준 실업자 3. 비경제활동자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주/자영업자 5. 무급가족 종사자 5=무급가족 종사자

요 약

(3) 분석결과

- 단독 가구 중년세대의 빈도수는 2012년 23에서 2021년 42로 증가하였음. 2018년부터의 증가가 눈에 띈. 단독 가구 노인세대는 2012년 38에서 2021년 75로 증가하였으며, 다인 가구 중년세대는 2012년 266에서 2021년 436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부터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전후 백분률 비교〉

조사 년도	중년 1 인가구	중년 1인가구 (가중치 적용 전 백분율)	중년 1인가구 (가중치 적용 후 백분율)	노인 1인 가구	노인 1인가구 (가중치 적용 전 백분율)	노인 1인가구 (가중치 적용 후 백분율)	중년 다인 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적용 전 백분율)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적용 후 백분율)
2012	23.0	8.4	10.5	38.0	6.8	9.6	266.0	7.8	9.7
2013	21.0	7.7	8.2	45.0	8.0	9.6	272.0	7.9	9.5
2014	21.0	7.7	8.1	46.0	8.2	10.1	247.0	7.2	8.7
2015	21.0	7.7	7.8	47.0	8.4	9.7	283.0	8.2	9.7
2016	24.0	8.8	9.7	47.0	8.4	9.8	285.0	8.3	9.8
2017	23.0	8.4	9.8	45.0	8.0	9.8	287.0	8.4	10.2
2018	32.0	11.7	9.4	73.0	13.0	10.6	459.0	13.4	10.8
2019	32.0	11.7	10.7	73.0	13.0	10.9	452.0	13.2	10.9
2020	35.0	12.8	10.4	71.0	12.7	9.7	447.0	13.0	10.4
2021	42.0	15.3	15.5	75.0	13.4	10.2	436.0	12.7	10.4
Total	274.0	100.2	100.0	560.0	99.9	100.0	3434.0	100.1	100.0

- 중년 1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소 경향이 있었고, 2021년에는 약간 증가하였음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전후 표본차이 비교〉

조사년도	중년 1인가구 차이	노인 1인가구 차이	중년 다인가구 차이
2012	2.1	2.8	1.9
2013	0.5	1.6	1.6
2014	0.4	1.9	1.5
2015	0.1	1.3	1.5
2016	0.9	1.4	1.5
2017	1.4	1.8	1.8
2018	-2.3	-2.4	-2.6
2019	-1.0	-2.1	-2.3
2020	-2.4	-3.0	-2.6
2021	0.2	-3.2	-2.3

요 약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경제활동 및 종사상 지위〉

		중년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ILO 기준 경제활동	취업자	82.72	25.64	66.12
	ILO기준 실업자	1.27	0.26	1.27
	비경제활동자	16.01	74.11	32.61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9	1.71	53.09
	임시직	5.73	25.95	10.46
	일용직	27.77	26.51	7.71
	고용주/자영업자	34.6	45.09	21.36
	무급가족 종사자	0	0.74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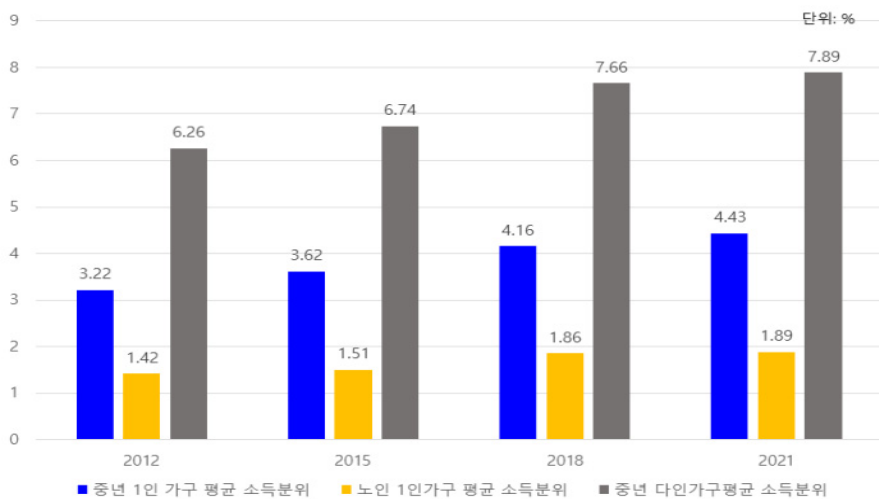
- 2015년 이후로는 8,00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0년 평균은 9,475.721임.
10년간 중년 다인가구의 부채 평균이 가장 높았고, 모든 그룹의 부채는 증가 추세를 보임. 노인 1인가구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중년/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부채액 평균〉

Year	중년 1인가구 Mean	노인 1인가구 Mean	중년 다인가구 Mean
2012	5100.0	2092.857	5910.526
2013	7750.0	4718.571	6724.049
2014	8325.0	1162.5	5507.619
2015	4875.0	1255.0	8160.357
2016	5433.333	1666.0	8909.091
2017	6271.429	1333.333	10435.96
2018	2533.333	6585.714	10431.88
2019	4440.0	7042.857	11427.96
2020	9520.0	8000.0	11172.7
2021	7032.143	9820.0	10895.7
Total	6007.927	4643.684	9475.721

요 약

- 중년 1인가구의 2012년 소득분위 3.22에서 시작하여, 2021년 4.43으로 1.2 포인트 상승함. 노인 1인가구의 2012년 소득분위 1.42에서 시작하여, 2021년 1.89로 0.5 포인트 상승함. 중년 다인가구의 2012년 소득분위 6.26에서 시작하여, 2021년 7.89로 1.6 포인트 상승함



[세 집단간 평균 소득분위]

- 중년 1인가구는 2012년에는 평균 건강상태 점수가 2.99였으나, 2021년에는 3.07로 소폭 증가하였음. 10년 동안의 평균 건강상태 점수는 3.05였음

조사년도	중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중년 다인 가구
2012	2.99	2.38	3.26
2013	2.74	2.59	3.24
2014	2.78	2.46	3.23
2015	3.14	2.37	3.40
2016	2.99	2.50	3.18
2017	3.09	2.30	3.28
2018	2.93	2.48	3.23
2019	3.33	2.43	3.39
2020	3.31	2.59	3.33
2021	3.07	2.49	3.33
Total	3.05	2.46	3.29

요약

4.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경험 심층면접

1) 조사 대상자

인터뷰참여자	지역	성별	나이(세)	직업
P1	서천	남성	48	무직
P2	청양	남성	58	일용직
P3	아산	남성	59	파트타임(음악)
P4	아산	남성	52	무직
P5	아산	남성	58	무직
P6	천안	여성	54	파트타임(노래방)
P7	천안	남성	58	무직
P8	천안	여성	53	무직
P9	천안	여성	60	무직

2)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의 분류 코딩 결과〉

대분류	중분류	개방 코드
1인가구로 고립 과정	어렸을 때 생활	어머니, 아버지, 가난, 가족 갈등
	다양한 청년 중장년의 인생	결혼, 독신, 직업, 수도권, 일자리, 귀향
	인생의 주요한 사건 발생	사고, 질병, 수술 마약, 이혼, 장애, 가출,
현재 중장년 1인가구의 생활	거주 상태	수도권, 일자리, 귀향, 결혼, 타지
	경제 생활	돈, 빚, 대출, 추심, 기초생활수급비, 부족한 지역 일자리, 음악, 미용, 한부모
	건강 상태	수술, 심장질환, 코로나, 재활, 불안감, 우울증, 암, 당뇨, 알코올 중독, 불면증, 마약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녀, 아내, 남편, 독신, 단절, 가족 해체
	복지 이용 경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공무원, 수급자, 후원품, 절차, 시간
생활 필요 사항	다양한 요구	일자리, 소일거리, 건강 관리, 자녀 만남, 집, 이동 지원, 여성안전 주거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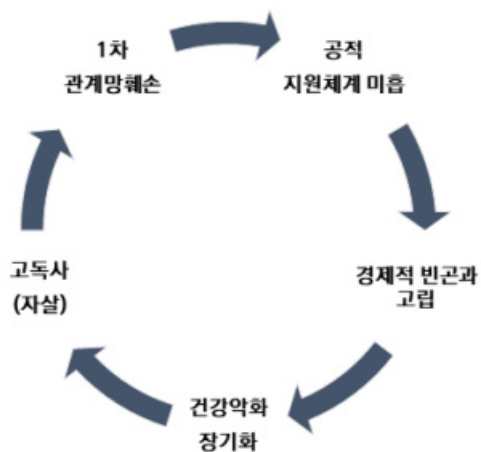
인터뷰 참여자 대상자별 주요한 연구 결과 요약

인터뷰 참여자	주요 사건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 요구
P1	-산재사고	-과다빚 -생활비 어려움	-신체나쁨, 정신 우울, 화	-가족 교류 부족 -친구만 가끔	-일자리(운전) -차량
P2	-사업 부도 -이혼	-저신용 -일용직	-나쁨	-이웃 친구 -아이 육아	-일자리 -경제활동시 육아 지원 -주거
P3	-마약수송책 도 피생활 -복역	-수급비 생활 -빚으로 강제추 징	-마약 중독 정신 과 치료 경험	-파트너 및 음악 활동 관계자 등	-음악활동 발전
P4	-아내바람 이혼 -코로나백신부 작용	-수급비 생활	-심장질환	-본가 가족 교류 -자녀 미교류	-자녀 만남
P5	-선천성 언어장애	-수급비 생활	-언어재활 -허리 목 재활치 료	-형, 친구와 교류 -교회생활	-없음
P6	-남편바람, 이혼	-수급비 생활 -노래방도우미	-정신질환의심 -높은 불안감	-가족외 교류적 음	-미용 일자리 -자녀 만남
P7	-발달장애(추정)	-수급비로 생활	-암수술 -당뇨	-이웃과 가족과 교류	-공공형 일자리 -쉬운 소일거리
P8	-이혼 -대장수술	-수급비 생활	-우울증 -장루장애	-요양병원 친구	-파트타임 일자리 -여성안전 주거
P9	-남편폭력 가출, 이혼	-수급비 생활	-알코올중독, 우 울증, 불안감	-요양병원 친구	-버스 교통비

5.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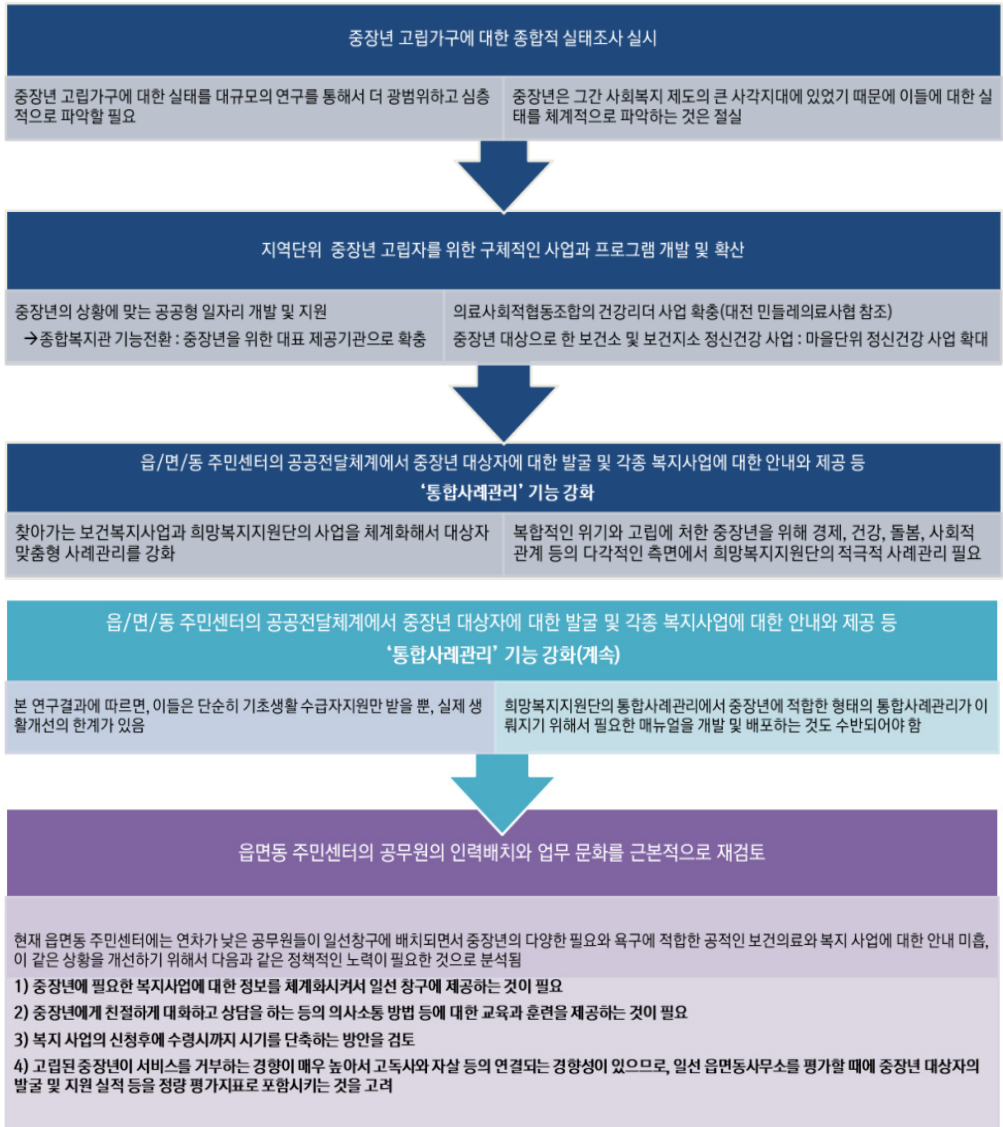
1) 연구결과 요약

- 본 인터뷰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자리의 부재로 인해 빈곤이 만성화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수급비의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는 존재하였음
-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상태로 장시간의 정규직을 갖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더욱이 일부는 장애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기적인 단시간 근로도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경제활동을 통한 2차 관계는 사실상 부재했고, 가족·친척·이웃과 같은 1차적 관계망도 심각한 축소가 발생했음.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된 상태로 보여짐
- 충남에서 중장년 고립자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상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1차적 관계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은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장기화로 가고 이는 다시 고독사·자살로 이어져 무연고 사망자’로 이르는 악순환의 텃에 빠질 우려가 있음. 이에 충남도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중장년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



요약

2) 정책제언



요약

2) 정책제언

중장년 사회적 고립 위험지구에 대한 시범사업

충남도 높은 자살률, 일자리에 대한 지역간 편차 높음

→ 지역의 특성을 반영, 중장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병/의원, 보건소 등 연계-협력 →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모델 제시

중장년 위기가구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중장년의 상황을 보통→ 심각 수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보통 : 모니터링, 자조모임(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조직화 교육 활용)

위기: 의료 및 상담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고용과 노동교육 제공 → 통합돌봄사업 연계

심각: 정신/신체건강 위기가구 → 의료, 상담서비스 및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 진행

중장년 1인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정례화

행복e음 시스템, 바우처 시스템, 고용 일자리 교육참여 정보, 지역 주민등록인구 자료 등 활용 → 복지사각지대 중장년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차례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2. 연구범위 및 과업수행절차 6

제2장 사회적 고립 개념 및 사례

- 1.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11
- 2. 충청남도 중장년 지원정책 15
- 3. 타 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례 27

제3장 중장년 사회적 고립 및 1인가구 특성과 욕구

- 1.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사회적 고립 실태 41
- 2. 중장년 1인가구 특성과 욕구분석 49

제4장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경험 심층면접

- 1. 조사개요 73
- 2. 심층인터뷰의 주요 결과 74
- 3. 중장년 1인가구 심층면접 결과 76

제5장 정책제언

- 1. 연구결과 종합 105
- 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106

- 참고문헌 111

표 차례 List of Table

〈표 1-1〉 연구추진체계	8
〈표 2-1〉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	16
〈표 2-2〉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	17
〈표 2-3〉 충청남도 서해안권 중장년 지원정책	19
〈표 2-4〉 충청남도 내륙권 중장년 지원정책	22
〈표 2-5〉 충청남도 금강권 중장년 지원정책	25
〈표 2-6〉 경기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사례	27
〈표 2-7〉 경기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생활안정·주거·안전 주요 사업	28
〈표 2-8〉 경기도 1인가구 건강돌봄 주요 사업	29
〈표 2-9〉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 불편해결 정책	32
〈표 2-10〉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 불편해소 정책	33
〈표 2-11〉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 불편해결 정책	35
〈표 2-12〉 부산광역시 중장년 1인가구 주요 지원사업	36
〈표 2-13〉 중장년 1인가구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37
〈표 2-14〉 중장년 1인가구 소득 및 돌봄 지원사업	38
〈표 3-1〉 전국 연령에 따른 1인 가구 추계(2020년, 2047년)	42
〈표 3-2〉 충청남도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	43
〈표 3-3〉 충청남도 연령별 1인 가구, 성별 현황	44
〈표 3-4〉 전국 자살자 수 및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45

표 차례 List of Table

〈표 3-5〉 변수 설명	51
〈표 3-6〉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율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56
〈표 3-7〉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전후 백분율 비교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59
〈표 3-8〉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전후 표본차이 비교	60
〈표 3-9〉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인구사회적 특징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비율)	61
〈표 3-10〉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경제활동 및 종사상 지위(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비율)	63
〈표 3-11〉 중년 및 노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연도별 가구 분포	63
〈표 3-12〉 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부채액 평균	64
〈표 3-13〉 세 집단의 연도별 평균 소득분위	66
〈표 3-14〉 건강상태 조사 결과	67
〈표 3-15〉 가족/ 주거 만족도 데이터 요약	68
〈표 3-16〉 각 집단별 사회적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69
〈표 4-1〉 인터뷰 참여자 주요한 특징	74
〈표 4-2〉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의 분류 코딩 결과	74
〈표 4-3〉 인터뷰 참여자 대상자별 주요한 연구 결과 요약	75

그림 차례 List of Figure

[그림 1-1] 1인가구 증가추계	3
[그림 3-1] 충청남도 1인가구 비율	41
[그림 3-2]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전국)	42
[그림 3-3] 충청남도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	43
[그림 3-4] 충청남도 시군별 중장년 장래인구 추계	44
[그림 3-5] 충청남도 시군 자살률	46
[그림 3-6] 충청남도 고독사 현황 및 전국 자살률	46
[그림 3-7] 연령별 고독사 현황	47
[그림 3-8] 충청남도 중장년 자살 총동 사유	48
[그림 3-9] 전국 1인가구 비중(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52
[그림 3-10] 전국 중년 1인가구 비중(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54
[그림 3-11]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율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56
[그림 3-12]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율 막대그래프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57
[그림 3-13] 중년/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부채액 평균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65
[그림 3-14] 세 집단간 평균 소득분위	66
[그림 5-1]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수레바퀴	105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과업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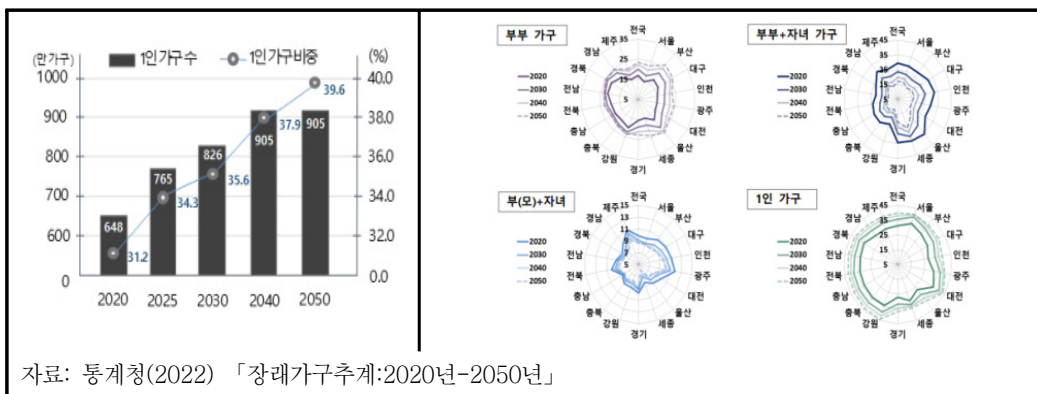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2022)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우리사회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핵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1인가구 증가추계

-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중장년 1인가구는 이혼과 사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분거가구를 비롯하여 결혼이라는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은 독신가구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 이는 중장년 1인 가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비롯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함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됨.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인가구의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위기(송승연, 2016; 김수진·김세영, 2013)에 주목하였음. 이들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제가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 유발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음(홍현진 외, 2016). 고독사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계층에서 주로 발현된다는 조성숙(2018)의 주장을 근거로 볼 때,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은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충청남도 자살률 변화추이를 보면,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다른 연령보다 중장년의 자살률은 증가하였음(오정아, 2022). 이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함
- 그동안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매몰되어 인구출산과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집중하였음. 때문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이슈의 상당부분은 노인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부분이 노인 1인 가구에 집중되어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음
- 중장년은 노년기로 이행되는 기로에 있는 계층으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고립과 고독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음.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결국, 지역사회 위험사회인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됨
- 상황이 이러함에도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음. 일부 내용이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언급이 되었으나, 중장년 1인가구의 문제에 대한 실태와 심층 분석은 충분하지 않음. 즉, 충남도내 중장년 1인가구의 생활실태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족하고 이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발굴의 한계를 가져옴

- 이에 이 연구는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해 중장년 1인가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22년 수행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 강화방안’연구의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증연구임
- 현재까지 충남도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 수행이 미흡하였고,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수립의 근거기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함. 이에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경험의 삶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충남도 및 타시도의 정책을 살펴보고자함. 또한 국가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하고, 충청권과 충남도의 중장년 1인가구의 상황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또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충남도에서 중장년 1인가구로의 삶에 대해 인터뷰하고 분석하여 충남도 중장년의 삶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함.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 간담회를 거쳐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과업수행절차

1)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 행정데이터 범위: 2023년 전후 3년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중장년 1인가구의 심층면접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전 생애에 걸친 삶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함

(2) 공간 및 대상 범위

-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전체
- 대상 범위: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

2) 연구내용

(1)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제2조의 제2호에 근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로 정의하였고, 일각에서는 매우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은 개인이 고독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김춘남, 2018; 이상철, 조준영, 2017)
- 일본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자원이 없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대상이 없는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되고 있어 이와 관련되어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함

(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충남도 및 타지역 사례 분석

- 서울시는 각 구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중장년을 비롯, 1인 가구 이면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렇듯 충남도를 비롯하여 타 지역의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충남도에 반영가능성을 타진하고 충남형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 제안에 활용하고자 함

(3) 국가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중장년 1인가구 특성과 욕구 분석

-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함. 이 데이터는 매년 1회씩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과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이 자료를 활용하여 충남도와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을 분석하였음
- 또한 충청권 즉, 충북, 대전 등 충청권에서 충남도 중장년 1인가구의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도 중장년 1인 가구와 충북과 대전의 중장년 1인가구의 욕구를 비교함

(4)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 충남도는 19세부터 39세 연령이 청년에 속하고, 65세는 노인에 속함. 이에 이 연구에서 중장년은 40세부터 64세 연령으로 청년과 노인에 속하지 않은 연령을 중장년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함.
- 이에 거주하는 40세부터 64세 중장년 1인 가구를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 이들 중 남성이 4명이었고 여성이 5명이었으며 대부분 가족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홀로 생활하고 있었음
- 심층면접은 1회 60분에서 120분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전체 내용을 전사 후 분석에 사용하였음

(5) 사회적 고립

●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간담회 진행

자문영역	자문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에 대한 자문	학계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 활용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정책	

2) 연구추진체계

- 연구 설계와 문헌고찰, 조사연구 및 정책발굴, 최종보고회 및 발간의 순서로 진행된 연구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1-1〉 연구추진체계

단계	구분	추진일정	연구내용
연구설계	연구방향 설계	5월-6월	- 사회적 고립 개념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심의 및 착수보고회
문헌고찰	선행연구 고찰 심층면접 질문지 개발	6월-7월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반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조사연구	심층면접 대상자 섭외 및 진행	7월-9월	- 연령과 지역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 섭외 1:1 심층면접 진행
	국가통계데이터 활용, 중장년 1인가구 분석	8월-11월	- 충청권 중장년 1인가구 비교 - 충남도 1인가구 현황 분석
	심층면접 자료 전사 및 분석	10월-11월	- 심층면접 자료 전사 - 사회적 고립 경험 분석
정책 발굴	정책간담회 및 정책 발굴	11월	- 정책간담회 - 학계-공무원 등 참여
최종 보고회 및 발간	최종보고회	12월	- 최종보고회 진행 - 전문가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발간	12월	- 보고서 수정 보완 - 최종 보고서 발간 - 완료계 제출



제2장 사회적 고립의 개념 및 사례

1.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2. 충청남도 중장년 지원정책
3. 타 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제2장 사회적 고립 개념 및 사례

1.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고립은 개인의 주관적 단위부터 넓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음. Wang 등(2017)은 사회적 고립, 고독,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자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등으로 고립을 구분하였고(오정아 외, 2022), 일각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객관성과 주관성, 자발성과 비자발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Townsend, 1957, 1974; Vincenzi & Grabosky, 1987; 김춘남 외, 2018; 박선희 & 최영화, 2020; 오정아 외, 2022 재인용)
-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고립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와 접촉 정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등을 의미함(Taylor, Taylor, Nguyen, & Chatter, 2020; Townsend, 1974). 객관적 고립의 상태에 처한 개인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접촉의 빈도가 매우 낮고(Townsend, 1974), 실업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임(Backman & Nilsson, 2011)
- 반면, 주관적 고립은 관계에 대한 부적절함 또는 불만족스러움이나 정서적 친밀감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음(Taylor, Taylor, Nguyen, & Chatter, 2020; 박선희 & 최영화, 2020에서 재인용). 주관적 고립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하고, 사회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됨(이상철, 2017). 주관적 고립과 관련하여 여종일(2019)은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는지 등으로 주관적 고립의 상태를 정의하였고, Vincenzi와 Grabosky(1987)는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이 동반된 외로운 상태를 주관적 고립으로 해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지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됨. 먼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하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측정한 것임(김주연, 2017; 김춘남 외, 2018; 한신원, 2013).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등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우울할 때 함께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측정함(장향채, 2018; 김주연, 2017; 김춘남 외 2018; 이상철·조준영, 2017). 일본에서는 매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되는 고립척도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 외, ‘개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여부’의 문항을 포함하였음. 이는 고립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뿐만 아니라 개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는가의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음(오정아 외, 2022)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수준이 낮고, 경제적 빈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자원이 없으며, 가족이나 친인척, 지역사회에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거나 받는 등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자 함

2) 중장년 연령의 범주

- 중장년은 중년과 장년을 통합하여 이르는 용어로 학계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음. 다만, 학계에서 생애주기를 구분할 때 청년기 다음으로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분류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중장년을 30세부터 49세의 연령으로 구분하였고,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노동이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의 집단을 중장년으로 보았음.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을 중장년으로 명명하였음
- 다만,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9세으로 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노인복지기본조례」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또는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년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40세부터 49세 연령이 청년기와 중장년 어느 시기에 속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
- 이에 본 연구는 학계에서 제시하는 생애주기별 분류기준과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와 「충청남도 노인복지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양 조례 어느 기준에도 속하지 않은 연령에 속하지 않는 40세부터 64세 연령을 중장년으로 명명하고자 함

3)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행연구

- 학계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즉, 중장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열악하고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를 더 높게 지각하고(최유정 외, 2016; 이명진 외, 2014), 노동현장에서도 소외되어 50대 중반 이후 고용불안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자살생각이나 계획의 가능성(이민홍, 전용호, 김영선, 강은나, 2015)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삶을 위협하여 종국에는 노년기 사회적 비용

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서울시 고독사 인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56.7%(송인주, 2016)를 차지한다는 것은 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소외와 고립의 심각성을 보여줌. 부산시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부산의 경우 홀로 생활하는 중장년(40~50대)가 42.6%로 높았고, 부산과 서울 모두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최현수 외, 2019)
- 실제로 중장년과 노인 1인가구의 삶을 비교분석한 정상민(2018)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이 노인 1인가구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중장년 1인가구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개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임(이정민, 201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은 중장년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주변인으로 남게 되고 이는 경제적 빈곤과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 열악한 건강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우려가 높음
- 중장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충남도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음. 일부 1인가구 실태조사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 관련 연구에서 중장년 1인 가구 현황에 대한 언급은 이뤄졌지만, 실제로 사회적 고립의 경험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음
- 중장년 1인가구의 문제에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은 성공적 노년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에 본 고에서는 충청도와 타시도의 중장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충청도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2. 충청남도 중장년 지원정책

1)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

- 2023년 충청남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충남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는 중장년 1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장년 1인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정책에는 도내 ‘1인가구 사회관계망 개선 지원’ 사업과 ‘충남형 1인 가구 정책사업 발굴 사업’이 있고, 여성가족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음
- 첫 번째 사업은 도내 ‘1인가구 사회관계망 개선 지원’ 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초기상담,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통한 1인가구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두 번째 사업은 ‘충남형 1인가구 정책사업 발굴’로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에 수립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3~’27)’(4개 분야 15개 과제)을 정착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역점과제임.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도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청년층 또는 노년층의 취약 1인 가구 중심으로 지원되어 도내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가 다양한 1인가구의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도내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처음으로 중요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표 2-1〉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충청 남도	1인가구 사회관계망 개선 지원	▪ 도내 생애주기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생애주기별·신노년·이혼 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12개소) ▪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자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4개구)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9월)	생애주기별 (중장년) 1인가구	여성가족국
	충남형 1인가구 정책사업 발굴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3~’27)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정착화 ▪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내용: 1인가구 분야별 불편사항 해소방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	충남도민 (1인가구 포함)	여성가족국 [역점과제]

자료: 충청남도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2)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중장년 지원정책

- 충청남도 시·군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정책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개선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등 분야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충남도 시군에서 추진되는 중장년 지원 정책을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충청남도 북부권 중장년 지원정책

- 북부권에서 추진되는 중장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천안시와 서산시는 중장년만 초점을 두기보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반면, 당진시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재취업과 고용정책에 초점을 두었음

〈표 2-2〉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천안시	1인가구 “공감·동감”마음돌봄 지원사업 추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관계성 회복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여성가족과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및 일반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건강가정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시범 실시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여성복지과
	모종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 문화기반시설 확충 - 신중년·명품인재 양성공간조성 - 설계공모, 실시설계 착수 및 실시설계 준공	중장년 1인가구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서산시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	1인 가구 및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고독사와 은둔형 고립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망을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 고위험군 중장년층 가구를 시스템에 등록(780명)하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음성통화 발신(수신)기록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자 감지 --> 읍면동 통보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	사회복지과[주요업무]
당진시	여성 안심 프로젝트 제공	- 여성 대상 범죄 및 1인 여성 가구 증가에 따른 불안요인 증가로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차안 대책 강화 ☞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지역 10개소	여성정책팀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 년(퇴직자)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교육훈련) 직업교육, 역량 진단, 취·창업 정보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제공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1상담,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지원	만 40세 이상의 신중년, 퇴직자(예정) 등	일자리지원팀 [사회연계업 무, 지시사항]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 지역내 기술·경력, 인프라, 전문성을 보유한 3년 이내의 만40세 이상 중장년(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지원 ☞ 창업자 발굴 및 선발,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사업 추진	만 40세 이상 중장년	일자리지원팀 [국·도정연계 업무]
	자살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생명사랑 운동	자살고위험군(1인가구 등) 발굴 및 선제적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사회적 자살예방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당진시민	마음건강팀(국·도정연계, 시책연계업무)

자료: 2023. 시·군지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충청남도 및 시·군지역 홈페이지(2023.9.검색)

[북부권 중장년 자원사업 사례]

▶ “1인가구 지원사업” (천안시)

- 천안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함
-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돌봄’, ‘교육 및 문화’, ‘심리정서’, ‘동아리’사업 등 총 4개분야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모집 대상은 천안시 거주하는 1인가구임



출처: 충청일보(23.12.28)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사업 본격 추진
<https://www.chungnai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82>

▶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센터” 운영 (당진시)

-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무실, 코워킹 공간, 비즈센터, 창업전용 입주 공간, 휴게실 등을 갖추고 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중장년 세대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임
-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사업운영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됨



출처: 1. 연합뉴스(2019).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유치.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발굴<https://v.daum.net/v/20190430092924754>
 2. 쿠키뉴스(2020).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우수 A등급'에 선정<https://v.daum.net/v/20210303220303544>

(2) 충청남도 서해안권 중장년 지원정책

- 태안군과 보령시, 서천군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의 중장년 지원정책을 보면, 태안군은 중장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안부살핌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 사업을 비롯하여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이 있음. 특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태안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역사회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자칫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중장년층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음
- 보령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년 사업 중 주목할 것은 지역의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임. 자살에 의한 고독사 비율이 높은 만큼 자살예방사업은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 다만, 이 사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은 한계로 남음. 이에 보령시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한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년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서천군의 경우 중장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부터 귀어귀촌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표 2-3〉 충청남도 서해안권 중장년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태 안 군	1인가구 취약계층 안부 살핌 서비스운영	• 전력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소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될 시 복지담당자에게 통보 - 한국전력·SK텔레콤 ⇒ 지자 체 복지담당자 서비스 결과 모니터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	희망복지팀 [역점업무]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추진	•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전문강사를 통한 나만의 건강밥상 및 TCI(성격 및 기질)검사 실시 -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 계층별 자조 모임 활성화(일상생활 정보공유 등)	중장년 (만40세~59 세) 1인가구	여성정책팀 [역점업무]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	-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보호사, 실버인지놀이 지도자 자격증 취득과정 - 과정별 교육 실시 후 취업 연계	태안군 거주 은퇴(예정)자 (만 5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일자리사회적 경제팀 [공약업무]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제2의 인생 리스타트' 프로그램	- 관내 귀농귀촌인 등 40~60대 1인가구 10명을 상으로 여가활동과 자기돌봄 시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리교실 등 총 8회기 진행	중장년 (40~60대) 1인가구	태안군 가족센터
보령시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강화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1인가구 자조모임, 특화사업 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가족지원과
	신중년 생애경력 설계 인생3모작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양질의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컨설팅을 통한 안정화 지원 . (보령50+취업상담사) 2명 / 지역 일자리 서비스망 확대·강화 . (자연학습식물생활원예사) 2명/식물원 관리를 통한 시민 힐링공간 조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취·창업과 연계하기 위한 양성교육 등	중장년층	지역경제과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민수요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신중년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보령시민 (중장년포함)	문화교육과
	국가 암 및 건강검진 사업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폐암, 일반검진, 성인병질환, 전립선 암검진, 유방초음파 검진 실시 -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 50% 홀수년도 출생자	중장년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지체계 강화	지역주민 및 자살고위험군 (중장년포함)	건강증진과
서천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천군 인구정책 실행기반 개편 및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 시행 등 - 중장기 인구대응 계획 정립 및 기능체계 구축 - 지방소멸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지원 강화 - 군민 숲 생애주기별 수혜자 집중정책 발굴 및 추진: (중장년 지원 조례) 군 최초 중장년층 지원제도 신설 및 분야별 시범사업 발굴과 본격추진(취창업, 교육, 건강, 여가지원 등)	중장년층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정책개발팀 [주요업무]
	기회와 품격이 있는 중장년층	서천군 중장년 조례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 체계 마련	중장년층 만 40세 이상	정책개발팀 [주요업무]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정착지원 체계 마련(신규)	- 분야별 특화 시범사업 발굴·추진 및 중장년 참여 네트워크 구성 - 귀농귀촌, 돌봄 및 양육관련 지역공동체와 중장년층 협업체계 구축	64세 이하	
	여성 1인가구 셀프 방어막 구축 지원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키트 지원 - 안심키트 4종 지원(현관문 이중잠금고리,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홈CCTV)	주인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or 실 단독 세대 여성 1인가구	여성 청소년팀 [주요업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로 건강 100세 마을 조성 및 건강향상 - 중장년 대상으로 ICT 활용 모바일 헬스케어	중장년층 (1인가구 포함)	건강증진팀 [주요업무]
	충남형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 '함께 락락(樂樂) 보고서'	50~60대 남성 1인가구의 고립 및 관계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중장년 맞춤 재무교육 - 1인가구 맞춤 요리교실 - 함께하는 여가활동	50~60대 남성 1인가구	서천군가족센터

자료: 2023. 시·군지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충청남도 및 시·군지역 홈페이지(2023.9.검색)

[내륙권 중장년 지원사업 사례]

▶ '함께 락락(樂樂)' (서천군)

- 소외되기 쉬운 50~60대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으로 재무교육, 요리교실,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충남형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

함께 락락(樂樂) 보고서

혼자가 아니라 즐겁고 함께여서 더 즐거운 모임

♡ 참여자 모집 ♡

- 모집기간: 2023년 7월 28일~ 8월 18일
- 모집대상: 50~60대 남성 1인가구 10명
- 진행장소: 서천군가족센터(서천읍 서문로 38) 서천요리학원 등 외부

따로 또 같이 성장하기

중장년 맞춤 재무교육
수요일 저녁7시~9시

재무강화 8/30
재무강화 9/6
재무강화 9/13
※3회기 모두 참석시
배대인 1:1세무컨설팅

따로 또 같이 건강하기

1인가구 맞춤 요리교실
수요일 저녁7시~9시

만고초지 9/20
원월초지 10/4
반월만월 10/11
수제맥주 10/18, 10/25

따로 또 같이 행복하기

함께하는 여가활동
객주 토요일 10시

문학 9/9
주부비즈니스 9/23
독공예(도예) 10/14
독공예(비나수남장) 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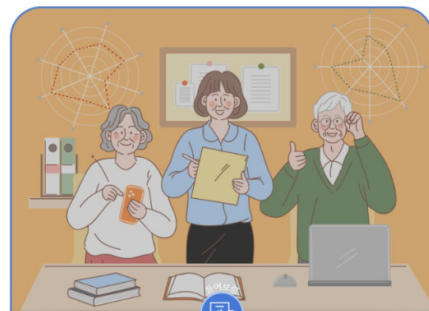
*참가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출처: 서천군 가족센터

▶ '신중년 일자리 창업교육' (보령시)

- 만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대상으로 창업코디네이터, 취업상담 등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2023 보령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출처: 보령시청

https://search.brcn.go.kr/RSA/front_new/Search.jsp

(3) 충청남도 내륙권 중장년 지원정책

- 공주시와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을 중심으로 내륙권의 중장년 지원정책을 보면, 공주시는 공주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고독사 예방 등 1인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 계룡시와 예산군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2-4〉 충청남도 내륙권 중장년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공 주 시	건강·다문화가 정 지원	-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 1인가구 돌봄, 안전, 사회적관계 등 지원	1인가구	건강·다문화 가정지원
	고독사 예방 등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 실태 전수조사 실시	만 40세~ 64세 중장년 및 만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 팀
계 룡 시	다양한 가족! 다양한 프로그램!	- 가족유형별(1인가구, 다문화, 한부모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체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한 가족사업 지원체계 구축 ☞ 1인가구, 부모·자녀, 부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1인가구 힐링수다, 식생활개선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추진(3~11월)	1인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가족돌봄과 가족지원팀[주요업무]
	재정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일반,계룡병영안보체험장 운영)	만 40세 ~ 65세(공통), 군경력 20년 이상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만 50세 이상~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추진	만 50세 이상~70세 미만 중장년층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건강수명은 혈관건강으로! 심뇌혈 관질환 예방관리	-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자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 3050 중점대상(군부대, 사업장 등) 심뇌혈관 예방교육 ☞ 중장년 직장인 대상 주제별 만성질환교육 및 상담	30대~50대 중장년 직장인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
예산 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함 -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80여명(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경제과 일자리팀 [중점업무]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원룸·다세대주택 등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방범 장치가 미흡한 12세대를 선정해 현관문 보조키,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등을 제공	여성 1인가구	가족지원과
홍성 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 대상: 중장년 1인가구 - 내용: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중장년 1인가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	50~60대 남성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 2023년 여성가족청소년 사 - 회서비스원 공모 사업 선정 '클로바케어콜' 자동전화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AI와 주 1회 자동 통화 후 관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의 식사, 수면상태, 운동, 외출, 건강, 긴급사항 등 파악 및 신속 대응	관내 50~60대 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약 200세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023 홍성군 1인가구 찾기_1인가구 등록제 사업	- 혼자서 생활하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맞춤형 활동 제공 - 여가, 교육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1인가구 페스티벌 - 등록제 완료 시, 웰컴박스 제공	홍성군 거주 중장년(1960 ~1984년) 1인 가구 (예비 1인가구)	홍성군 가족센터
	중장년1인가 구 독립생활 지원프로젝트 '마음선물'	- 중장년 1인가구 독립생활 지원프로젝트 '중장년 1인가구 응원키트- 마음선물' 프로그램 - 내용: 응원 키트 1회 지원	중장년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중장년 1인가구 흥성 투어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흥성 투어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근력증진 케어푸드 지원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중장년 1인가구 근력증진 케어푸드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분야별 소모임 활동	• 중장년 1인가구 분야별 소모임 활동 - 나의 첫 번째 취미생활, 손뜨개, 나의 첫 어반스케치, 이야기 별다방 소모임	중장년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일상의 즐거움-가족 공예	•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 일상의 즐거움: 가족공예, 향수 만들기, 여가프로그램: 마음선물 등	중장년 1인가구	
청양군	1인가구 지원 사업 '청양일가'	•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유지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드로잉접시, 캔들 양초 만들기, 경제교육, 꽃꽂이 원데이클래스, 건강집밥, 홈카페 등)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청양군 가족센터

자료: 2023. 시·군지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충청남도 및 시·군지역 홈페이지(2023.9.검색)

[내륙권 중장년 지원사업 사례]

▶ '신중년 경력형 일자사업' (계룡시)

- 신중년(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출처: 충남일보(2023.12.28.). 계룡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http://www.chungnamilbo.co.kr>)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예산군)

-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중장년 은퇴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실비와 참여 수당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형 일자리 사업임



출처: 대전일보(2022.12.6.) 예산군,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지역사회 호응(<https://v.daum.net/v/20221206145654099>)

(4) 충청남도 금강권 중장년 지원정책

- 논산시와 금산군, 부여군의 금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 정책을 보면, 논산시에서는 중년층의 건강요리 교육인 “꽃중년 요색남”프로그램이 있고, 금산군은 금산형 맞춤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부여군은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프로그램이 있음
- 그 중 논산시의 꽃중년 요색남 프로그램은 중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금산군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금산마음쓰담톡 프로그램은 1인가구의 지역사회 고립과 마음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표 2-5〉 충청남도 금강권 중장년 지원정책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논 산 시	“꽃중년 요색남(요리하 는 색시한 남자) 도전 프로그램”	▪ 초고령화 사회에서 스스로 요리하기 힘들어하는 중년남성에게 맞춤형 건강요리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 조성 ☞ 스스로 요리하기 힘들어하는 중년남성에게 건강음식에 대한 조리법 제공	중년남성 30명	건강생활 지원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 1인 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심리·정서 상담과 자조 모임 지원 ☞ 가족센터 가족상담사를 통한 전문상담, 전문교육, 자조모임 지원	1인 가구	다문화팀
금 산 군	사각지대 없는 금산형 맞춤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 『금산마음쓰담톡』: 복지사 각지대 카카오톡 상담 ▪ 콜 톡톡문안서비스: 고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휴대폰 수발신 기록이 없는 경우 안부확인 실시 ▪ 『희망연결고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MOU 협약 2023. 상반기 ☞ 지역복지 자원관리 체계화로 금산형 나눔체계 구축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봉사단 발굴 및 운영	금산군 관내 취약계층(1인 가구 포함)	주민복지지원 과 희망복지팀
	효율적인 산림서비스 인력 운영관리	▪ 관내 중장년층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제2의 인생 지원과 더불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기여 ☞ 사유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운영,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신중년 일자리 목공지도사 운영	중장년층	산림복지과 산림복지팀

구분	사업	내용	대상	담당부서
부 여 군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센터 운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성화 -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1인 가구, 가족, 부부 등) 상담 지원, 가족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 가족, 1인가족 등 부여군민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

자료: 2023. 시·군지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충청남도 및 시·군지역 홈페이지(2023.9.검색)

[금강권 중장년 자원사업 사례]

▶ ‘꽃중년 요섹남’ 중년 남성 요리교실(논산시)

- 논산시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미역국, 된장찌개, 장조림 등 요리와, 건강 및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출처: 대전일보(2023.8.3.). 논산시의 꽃중년 요섹남... 중년 남성 요리교실 인기

<https://v.daum.net/v/20230803201234391>

▶ ‘금산마음쓰담톡 운영’ (금산군)

- 카카오 채널에 접수된 어려운 이웃의 제보나 사항 등을 주민복지지원과 검토 후 관련부서 및 각 읍면에 전달돼 심층 상담을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



출처: 충청일보(2022.9.14.). 금산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금산마음쓰담톡' 운영(<https://www.ccdailynews.com>)

3. 타 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례

- 타 지역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 주요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1) 경기도

- 경기도는 2022년 12월 1인가구 지원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6개 영역(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의 37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표 2-6〉 경기도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사례

구분	사업내용
사회관계망 형성 분야	■ 중장년 수다살롱, ■ 청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건강돌봄 분야	■ 반려동물 지원 확대,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1인가구 공동체마을 공동부엌, ■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생활안정·주거·안전 분야	■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 경기도 어르신인생노트 사업, ■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연차별 확대 보급

- 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 수립 하에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주거·안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가 지원하는 1인가구 사업 중 중장년기(40~64세) 1인가구의 주요 사업을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분야에는 중장년 수다살롱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안정·주거·안전 분야에는 중장년 1인가구의 재무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7〉 경기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생활안정·주거·안전 주요 사업

지원분야	프로그램	내용	대상	담당기관 (센터명)
사회관계망 형성	중장년 '수다살롱'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 - 지원기준: 구성인원 5명 내외, 월 2회 이상 활동 - 지원금액: 분기별 30~50만원(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분야: 취미, 자기개발, 문화 등 주제별 및 연령대별 활동 희망분야	중장년 (40~64세) 1인가구	가족센터 13개소
생활안정/ 주거 /안전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 상담 지원	1인가구의 재무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연계 지원 - 대상: 프로그램 당 20명 - 시군 수요 지역사회 연계 자원 등 시·군실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당 4회기 내외 운영(노후자금 마련법, 금융투자 성향 확인, 노후자금 확인 및 계획, 주택 마련 지원제도 등 추천 정부제도 활용)	도내 중장년 1인 가구	가족센터 14개소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_분야별 정보_경기도민복지_1인가구지원사업(2023.9.검색).

[경기도 중장년 지원사업 사례]

▶ '경기도 1인가구 포털' 운영

- 경기도는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의 비전하에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이 포털을 통해 경기도 내 1인가구 지원정책과 사업을 소개, 각 지역별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도민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음

 경기도 1인가구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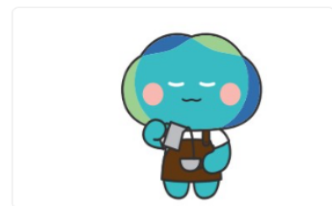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1ingg/main.do>)

▶ '수다살롱' (경기도)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지원
- 가족센터 13개소 (수원, 용인, 부천, 안산, 파주, 의정부, 광명, 하남, 이천, 안성, 포천, 가평, 연천)
- 중장년(40세~64세) 1인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가구)

중장년 수다살롱



- 건강돌봄 분야에는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 1인가구 공동체 마을 공동부역 사업,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사업,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반려동물 지원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2-8〉 경기도 1인가구 건강돌봄 주요 사업

지원 분야	프로그램	내용	대상	담당기관 (센터명)
건강돌봄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 전화, 면접 등을 활용한 중장년 정서심리(중독, 고독, 우울 등)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전화 심리상담 ☞ 사례관리: 주 1~2회 전화 심리정서 지원,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정보 제공 등 ☞ 심리방역 문자메시지(온마음편지) 제공, 심리검사 ☞ 마음돌봄 프로그램(마음돌봄 특강, 집단상담 등)	도내 중장년(만 50세이상 65세 미만) 1인가구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중장년 상담팀
	1인가구 공동체 마을 공동부역	1인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고 정서적 유대감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공동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인가구 공동체' 지원 ☞ 지원금액: 공동체당 4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가구 공동체 지원 ☞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역·요리교실·식사, 여가프로그램 등 지원	만 40~64세 중장년층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1인가구의 혼밥·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 식생활 개선 및 1인가구 간 연계를 위한 공동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도내 중장년 1인가구	가족센터 14개소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의 활동성 증진 및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 요가 등 홈트레이닝, 갱년기 극복 필라테스, 경기둘레길 걷기, 푸드테라피 집단상담	도내 중장년 1인가구	가족센터 14개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혼자서 병원이 가기 어려운 사실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동행하여 관련 서비스 지원 ☞ 서비스신청→동행인 출동→서비스 제공(병원 출발 및 귀가시 동행 병원 접수·수납, 약국 동행→사후 관리(비용수납 및 만족도 조사 등)	도내 거주 사실상 중장년 1인가구	5개 시군 관련 센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_분야별 정보_경기도민복지_1인가구지원사업(2023.9.검색).

[경기도 중장년 자원사업 사례]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운영

- 연령,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1인가구 지원정책임
-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 병원출발에서 귀가 시 동행까지 요양호차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서비스임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혼자 병원 가기 어렵죠? 경기도가 함께 동행해드립니다.”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란?

아픈데 혼자라서 병원 가기 어려우세요? 경기도가 함께 동행해드립니다.

- 운영시간 : 연중, 평일, 오후, 요일, 성별, 지역
- 지원대상 : 노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사실상 1인가구 (연령, 소득 무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 가구 역시

- 가족이 고령,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노년미취가구, 초혼가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내용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접수·수납 지원, 요양 시 진료 동행 등
-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

지원절차

- ① 서비스 신청
 - 전화 신청
 - 서비스 내용 절차 안내
- ② 동행인 출동
 - 동행인 배정 확정
 - 동행인 출동 후 이용
- ③ 서비스 제공
 - 병원 등 이동지원 (간 → 병실 등 → 집)
 - 병원내 수납 인바 및 약국 등 동행
- ④ 사후관리
 - 비용 수납
 - 만족도 조사

▶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
- 사업내용 : 1인가구의 혼밥·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 조리·식사 요리교실
- 수행기관 : 가족센터 14개소
 -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파주, 의정부, 광명, 하남, 이천, 안성, 가평, 연천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출처: 경기도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1ingg/main.do>)

2) 서울시 지원정책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둔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서울시 거주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분야별 불안 해소를 통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맞춤·융합·공감이라는 3대 원칙아래, 4대분야(건강·범죄·고립·주거) 안심정책, 21개 추진과제)을 추진하여 ‘1인가구 안심특별시 서울’을 조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1인가구 관련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안내 및 홍보하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짱글병글 서울’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25개의 자치구(24개의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중구 복지지원과 1인가구지원팀)와 연계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1인가구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1인가구 맞춤형 또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음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짱글병글서울’과 ‘가족패밀리서울’에서 안내·홍보 후 신청받고 있어 서울시 생활권 거주 1인가구 또는 예비 1인가구 시민들이 쉽게 관련 사업에 접근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공적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1인가구 3불(不) 해소’(불편·불안·불만)를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확대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1인가구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Door to Door),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지원,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1인가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귀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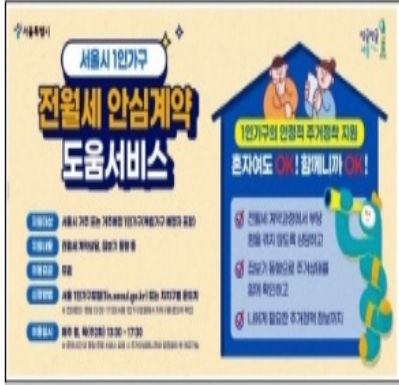
- 「서울 안심이」 앱 운영, 안심이 앱을 활용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서울시 안심장비지원사업, 1인가구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복원으로 고립·고독감 해소 지원사업(자치구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씹글빙글 경제교육, 마주봄 매니저(뉴딜일자리)운영,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씹글빙글서울’을 추진하고 있음

〈표 2-9〉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 불편해결 정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지원기관
불편 해결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 강화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Door to Door)	• 1인가구 등 시민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 지원 ☞ 병원 내 수납, 진료 동행, 병원 입·퇴원, 진료실 동행,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이용료: 시간당 5천원(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교통비 이용자 부담(*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무료 지원, 이용횟수 제한 없음)	• 서울시 실거주 시민(1인가구 포함)	• 콜센터 (1533-1179) 또는 온라인(1in.seoul.go.kr) 신청 후 서비스 연계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지원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 후 퇴원하는 1인생활 서울시민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일상회복매니저가 시민의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지원 ☞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서울시민	• 콜센터(1533-1179) 신청 후 서비스 연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요리교실'과 참여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 자치구 • (15개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가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지원정책 안내를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책 지원 ☞ 월 목(주 2회) 13:30~16:30 정기 운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 (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 자치구 • (25개소)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_분야별정보_1인가구;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씹글빙글서울'(<https://1in.seoul.go.kr/>)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포스터. 포스터에는 '1인가구 안심계약'과 '도움서비스'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지원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전월세 계약상담

- 주계약금 계약 유의사항 등 계약무효분
- 임대 계약금 반환 확인 등
- 생애 최초계약자, 청약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 1인가구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예방 등 지원

집보기 동행

- 불건전한 임대동행 지원 등 주거환경 점검 및 안전 주거 제공 시 동행도 지원
- 혼자 집을 데 놀릴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메시지와 함께 확인 가능

주거지 임대 지원

- 전월세 임대료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 주거임대료 지원
- 지역 여건에 따른 주거안심메시지의 지원으로 주거 임대 시간 연장

지원정책 안내

- 전월세 지원정보 제공안내
- 전월세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게 확인

〈표 2-10〉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 불편해소 정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지원기관
불안 해소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안심마을 보안관은 2인 1조로 동네를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으로, 1인가구, 원룸, 모자 세대가 밀집한 주거 특성을 지닌 지역의 순찰 활동을 지원	주거 안전이 취약한 1인가구 밀집지역	15개 자치구
안심귀가 스카우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심야 시간 귀갓길 안전 취약계층의 안심귀가 지원 2인 1조, 밤 10시~새벽1시까지(월: 밤10시~12시) 귀갓길 동행 서비스제공. 2024년부터 안심이 앱을 통한 100% 사전 예약제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25개 자치구
안심귀가 지원-「서울 안심이」 앱 운영	-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 실시로 긴급상황 대응 및 경찰 출동 지원 2024년부터는 안심 3종 신규 기능(안심 경로, 안심 친구, 안심 영상) 추가 예정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25개 자치구
안심이 앱을 활용한 안심귀가 택시서비스	-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귀갓길 안심귀가를 위해 택시 승·하차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지원 - 택시 승·하차 시간, 택시 보 등을 보호자(지인)와 CCTV 관제센터(자치구 25개소)에 전송하여 관제 지원 - 안심이 앱의 보호자 문자 알림 및 긴급통화 무료(운영: 365일, 24시)	* 이용자: 서울시민	안심이 앱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1인가구라 직접 만나는 택배 이용이 부담될 경우, 안심택배함으로 보다 안전한 비대면 택배 이용 지원 - 안심시설 위치 확인, 스마트보안등, CCTV, 지구대, 안심지킴이집 등 지원(운영: 365일 24시간)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시 1일당 1,000원 부과)	1인가구 포함 서울시민	안심택배함 콜센터 (1666-0339)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지원기관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지원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음식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연계 모니터링)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지원)	1인가구, 1인점포 및 스토킹 피해자 등	25개 자치구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_분야별정보_1인가구;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쌍글빙글서울'(<https://1in.seoul.go.kr/>)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사례]





▶ 전직 군인, 경찰, 자율방범대 등 지역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보안관 인력 총 63명이 순찰활동지원

- 순찰 시간 **야간 21:00~02:30**
-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 시민 추천으로 선정

▶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에게 **'안심장비 3종'**을 지원

-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 여성 1인 점포 '안심점포' 무선비상벨 지원

출처:

- 아이뉴스24(2023.9.4.). 서울시, '안심이앱' 기능 강화한다. <https://v.daum.net/v/20230904114054059>
- 조선비즈(2023.9.20.). 안심마을 보안관, 다음달부터 신림동 추가... 무차별 범죄 불안 줄인다. <https://v.daum.net/v/20230920151622796>
- 뉴스 1.(2022.3.24.). 서울시,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대상자 '안심장비 3종' 지원 <https://v.daum.net/v/20220324111518244>

〈표 2-11〉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 : 불편해결 정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지원기관
• 불만 완화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복원으로 고립·고독감 해소 지원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치구 내 1인가구가 흔히 겪는 5대 어려움(건강, 안전, 빈곤, 주거, 외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증진, 안전확보, 취미여가, 경제교육, 주거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상담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 예비 1인가구	자치구 (25개소)
1인가구 싱글벙글 경제교육	1인가구의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무관리와 부채관리 총 2개 분야 강의 및 1:1 컨설팅을 통해 1인 가구 경제자립 및 노후관리를 지원	서울시 1인가구	1인가구지 원센터 (19개소)
마주봄 매니저(뉴딜일 자리)운영	-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생활안심 코디네이터 '마주 봄, 매니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지원 - 정서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 발굴 및 찾아가는 방문상담 실시 - 개별 문제 및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및 전문 기관 연계 - 서비스 종료 후, 주기적 안부확인 및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 추진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총 30명	1인가구 지원센터, 종합사회복 지관 등
서울 1인 가구 포털 '싱글벙글 서울'	-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정보를 지도기반 서비스에 의해 한 눈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9.1. 오픈하였으며, 서울시 1인가구의 정책·정보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임 -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의 개요와 목표, 1인가구 유관기관 정보 등 제공	서울시 1인가구	서울시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_분야별정보_1인가구;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싱글벙글서울'(<https://1in.seoul.go.kr/>)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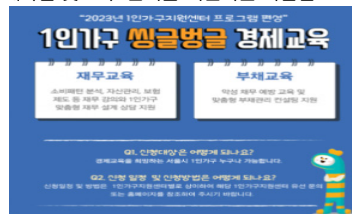
▶ 마주봄 매니저(뉴딜일자리)

- 약자동행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정서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 개인별 문제 및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과 기관연계
- 서비스 종료 후 주기적 안부확인 및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



▶ 1인가구 싱글벙글 경제교육

- 1인가구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무관리와 부채 관리 총 2개 분야 강의 및 1:1 컨설팅을 통해 1인가구 경제자립 및 노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서울특별시 포털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0103/>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0098>

3) 부산광역시 지원정책

-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취약계층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망 개선 및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있음. 부산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주로 중장년보다 청년·노인 1인 가구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됨(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23)¹⁾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이 있음. 첫 번째 사업은 부산시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상담·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정서지원(상담), 일상돌봄·감정돌봄·긴급돌봄지원(교육·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지원(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함. 두 번째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계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1인 여성가구 안전물품지원 등을 5개 자치구(가족센터, 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2-12〉 부산광역시 중장년 1인가구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내용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심리정서지원(상담)	1인가구의 고독·고립 문제, 관계 갈등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돌봄지원(교육·문화 프로그램)	- 일상돌봄: 스스로 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프로그램 등 - 감정돌봄: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한 감정코칭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 긴급돌봄: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등
	사회적관계망 지원(동아리 활동)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 지역사회연계: 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로깅 등 1인 여성가구 안전물품지원 등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_분야별 정보_1인가구 지원(2023.9.검색)

1)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3). 2023년 1인가구를 위한 조합정보안내

- 부산시 자치구·군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상당수는 사업이 중장년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었음. 특히 중장년 자조모임과 무드등 & 비타민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성격도 갖고 있음

〈표 2-13〉 중장년 1인가구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중장년 1인가구 자조모임 '솔로 5060'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 완화와 이웃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중장년 1인가구 밀키트 지원사업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영도구 저소득 중장년층 1인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 2회 밀키트 배달
중장년 여성 1인가구 프로그램 '온섬표'	중장년 여성 1인가구	소도구 필라테스, 재무교육, 워시바 만들기 등
'함께삶'을 위한 '무드등 & 비타민' 지원 사업	저소득층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이 있는 만 40세 부터 만 64세 중장년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별 경험 1인가구 '나로서기'	사별 경험 중장년 1인가구	명상, 페인팅 체험, 바디바 만들기 및 나눔 등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_분야별 정보_1인가구 지원(2023.9.검색)

[중장년 1인가구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사례]

▶ 부산 동구 수정1동, 중장년 1인 가구 '함께삶'을 위한 '무드등 & 비타민' 지원 사업

-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높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40세 부터 만 64세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할
- 정서적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무드등과 비타민을 전달
- 이들에게 안부를 전함으로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경상도 뉴스
<http://www.ynews.kr/news/view.php?idx=150885>

▶ 금정구, 중장년 1인가구 자조모임 '솔로(Solo) 5060'

- 솔로(Solo) 5060 자조모임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심리·정서적 지지망의 형성이 필요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우선 대상으로 지역 이웃과의 관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30810002900353>

- 부산시 자치구에서는 소득·돌봄 분야,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 분야 등에서 신중년 또는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인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노년 일자리 사업이 있음

〈표 2-14〉 중장년 1인가구 소득 및 돌봄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신중년 국내 여행인솔자 양성과정	50+세대 중장년 (1인가구 포함)	국내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명승지나 고적지를 안내 및 소개하고,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인력양성 교육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50+부산포털 운영	50+ 신중년세대 (1인가구 포함)	- 신중년 지원사업 개발을 통한 신중년사업 활성화 방향제시 - 장노년 종합상담체계 구축을 통한 신중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밍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연계 시니어인터십사업 추진 50+세대 경력 활용한 사회공헌·경력형 일자리 연계 및 확대 -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중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과정	부산거주 만55세~65세	- 마케팅 이론과 실전, 챗gpt 이론 및 활용한 마케팅 활동 등 교육 - 수료시 관련 기업에 취업연계 기회제공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50+포털 (2023.9. 검색)

[중장년 1인가구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사례]

▶ 2023 걷기여행 가이드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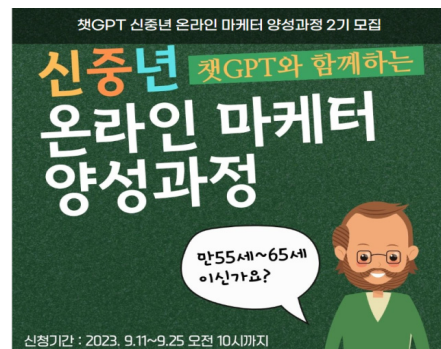
- 신중년·경력보유여성의 관광분야 직무교육을 통한 지역관광 인재 양성 및 관광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됨
- 교육내용: 트레킹가이드 직무교육, 현장실습 등 실무중점 교육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50+ 부산포털
<https://www.busan50plus.or.kr/education/order>

▶ 신중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과정

- 부산시 거주하는 만55세~65세를 대상으로 마케팅 이론과 실전, 챗gpt이론과 활용, 챗gpt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교육을 지원
- 모든 과정 수료시 포트폴리오 및 수료증을 제공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취업지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30810002900353>



제3장 중장년 사회적 고립 및 1인가구 특성과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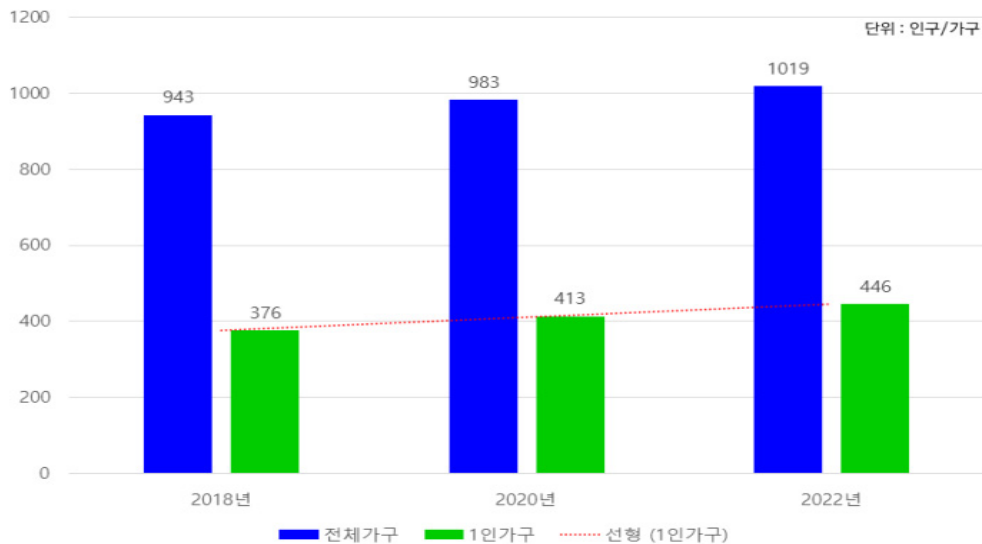
1.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사회적 고립 실태
2. 중장년 1인가구 특성과 욕구분석

제3장 중장년 사회적 고립 및 1인가구 특성과 욕구

1.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사회적 고립 실태

1) 충청남도 1인 가구 현황

-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현황에 앞서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먼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비혼가구를 비롯하여 경제활동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분거가족,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함
- 2018년 충청남도 1인가구는 전체 인구 전체 가구의 약 39.8%였던 것에서 2022년에는 43.7%로 증가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 통계(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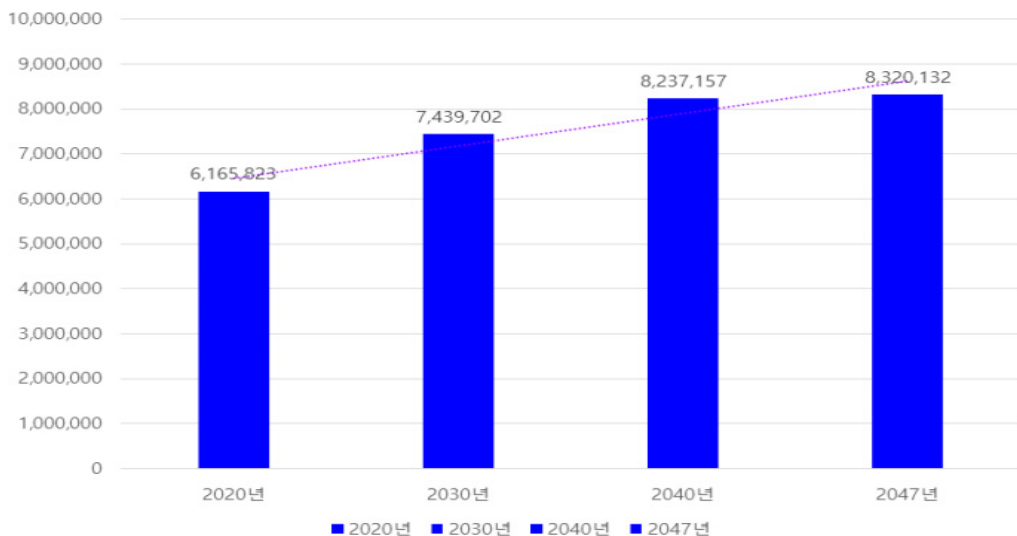
[그림 3-1] 충청남도 1인가구 비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2047년)를 보면, 전국의 1인가구는 2020년 6,165,823명에서 2047년에는 8,320,132명으로 약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 중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추이를 보임
- 연령별 1인 가구 증가추이를 보면, 40세 이상 64세 연령의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보다 낮지만 39세 이하 청년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중장년 1인가구가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면,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율은 향후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표 3-1〉 전국 연령에 따른 1인 가구 추계(2020년, 2047년)

가구주 연령별	2020년		2047년	
	계	1인	계	1인
합계	20,349,567	6,165,823	22,303,044	8,320,132
24세이하	564,601	480,372	397,326	358,797
25~39세이하	3,934,070	1,622,028	2,312,331	1,216,889
40~49세이하	4,241,514	899,066	2,518,127	813,777
50~64세이하	6,967,821	1,574,986	6,017,704	1,879,806
65세이상	4,641,561	1,589,371	11,057,556	4,050,86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년),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년), 가구주의 연령,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그림 3-2]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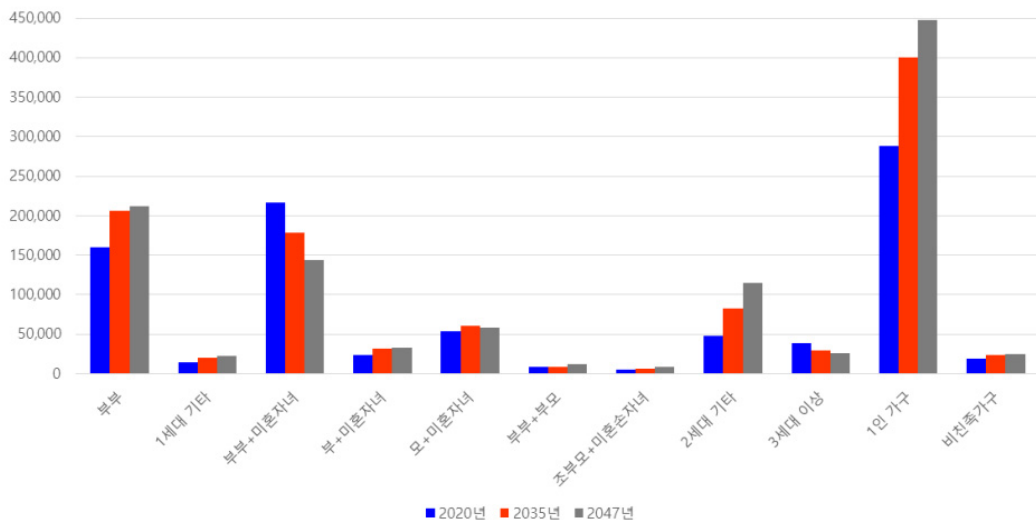
- 향후에는 1인가구의 증가추이가 부부+미혼자녀 가구보다 더 높게 전망되고 있음.
이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이 단기적 접근보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로 진입할 1인 가구에 대한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촘촘한 정책이 기획되어야 함을 의미함

〈표 3-2〉 충청남도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

(단위: 가구)

구분	2020년	2035년	2047년
계	874,677	1,047,081	1,104,000
부부	159,644	205,962	212,577
1세대 기타	13,839	20,077	22,307
부부+미혼자녀	216,160	178,211	144,067
부+미혼자녀	23,310	31,690	33,432
모+미혼자녀	53,901	60,307	57,907
부부+부모	8,212	8,437	11,871
조부모+미혼손자녀	5,529	6,466	8,263
2세대 기타	48,199	82,754	115,290
3세대 이상	38,230	29,162	25,488
1인 가구	288,633	400,386	447,874
비친족가구	19,020	23,629	24,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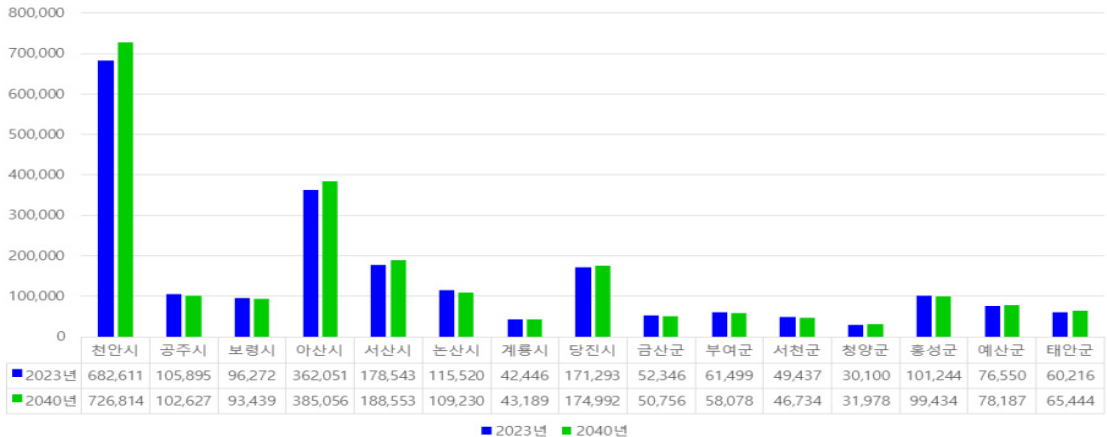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년), 가구주의 연령,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년), 가구주의 연령,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그림 3-3] 충청남도 가구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

- 충청남도 시군의 중장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등 충청남도 북부권 지역이 다른 시군보다 중장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2020~2040년), 가구주의 연령-시/군/구

[그림 3-4] 충청남도 시군별 중장년 장래인구 추계

- 충청남도 1인가구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40세부터 64세 중장년 1인가구는 2019년 105,201명에서 2022년 127,464명으로 약121%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65세 이상 연령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3-3〉 충청남도 연령별 1인 가구, 성별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2019			2022		
	1인 가구	남자	여자	1인 가구	남자	여자
충남(계)	280,773	146,305	134,468	340,741	181,544	159,197
20세미만	3,328	1,660	1,668	3,409	1,660	1,749
20-29	49,386	27,964	21,422	58,522	33,098	25,424
30-39	43,696	31,517	12,179	52,148	37,232	14,916
40-49	36,475	24,929	11,546	42,818	29,846	12,972
50-59	45,462	26,689	18,773	52,769	32,147	20,622
60-64	23,264	11,505	11,759	31,877	16,891	14,986
65세 이상	79,162	22,041	57,121	99,198	30,670	68,528

자료: 통계청, 1인 가구비율(시도/시/군/구)

2)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현황

-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자살을 비롯하여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모두 고독사로 보고 있음. 이에,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강원도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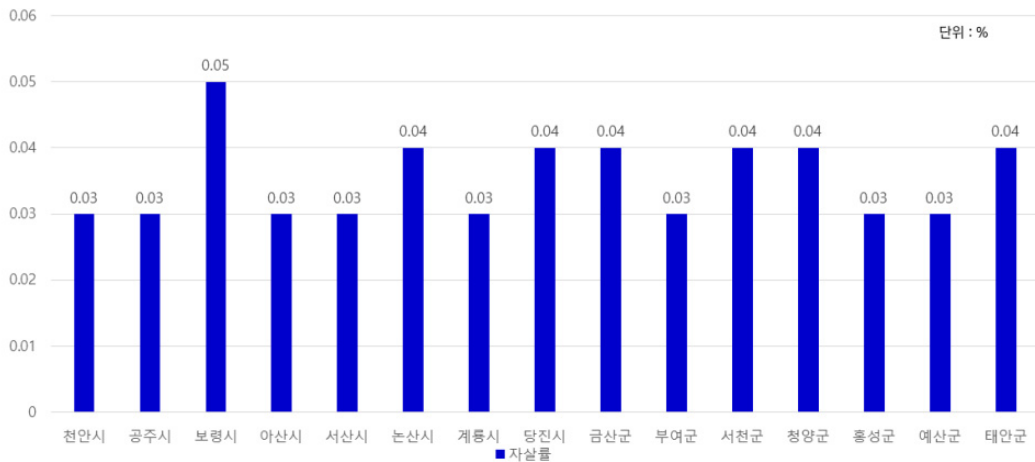
〈표 3-4〉 전국 자살자 수 및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단위 : 명/%)

구 분	인구	자살자수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수	구 분	인구	자살자수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수
서울	9,509,458	2,133	22.4	경기	13,565,450	3,158	23.3
부산	3,350,380	926	28	강원	1,538,492	501	33
대구	2,385,412	628	26.3	충북	1,597,427	506	32
인천	2,948,375	757	26	충남	2,119,257	679	32
광주	1,441,611	380	26.4	전북	1,786,855	509	29
대전	1,452,251	425	29.2	전남	1,832,803	554	30
울산	1,121,592	320	29	경북	2,626,609	760	29
세종	371,895	69	19	경남	3,314,183	872	26
				제주	676,759	175	26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2.12.기준) 데이터 저자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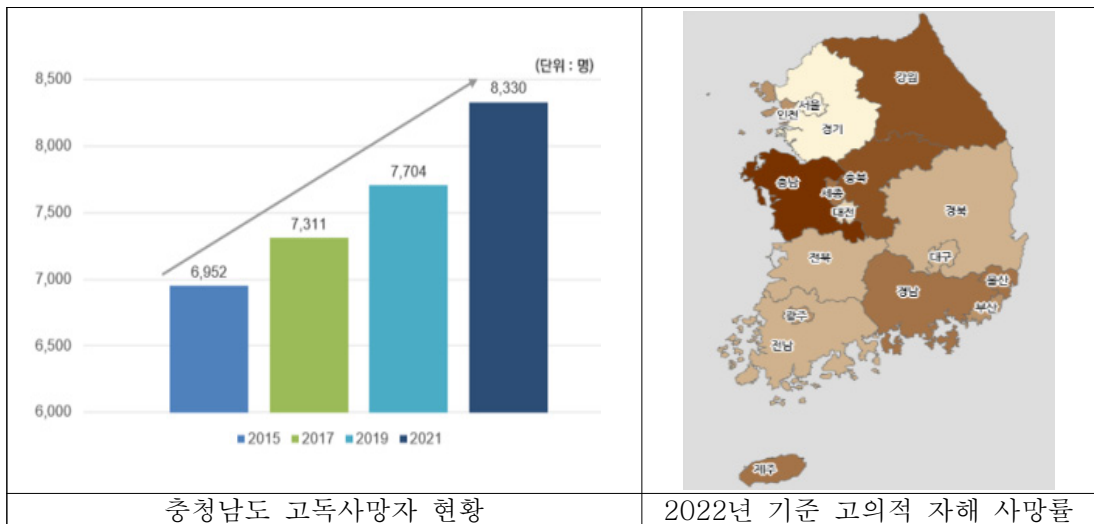
- 충청남도 시군의 인구대비 자살률을 보면, 보령시 자살률이 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논산시와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의 지역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대비 0.4%비율로 나타남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2.12.기준) 데이터 저자 재분석

[그림 3-5] 충청남도 시군 자살률

- 오정아 등(2022)의 조사에서도 충청남도 고독사는 2015년 6,952명에서 2021년 8,3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2년 기준 통계청에서 집계된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의 경우도 충남도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이 확인됨



충청남도 고독사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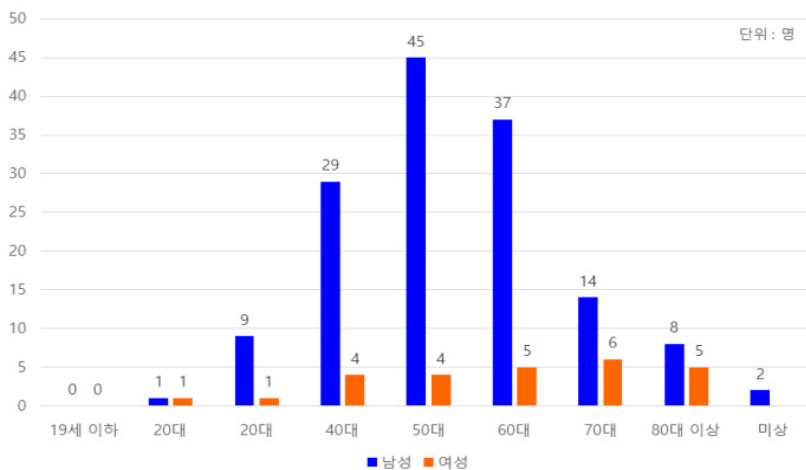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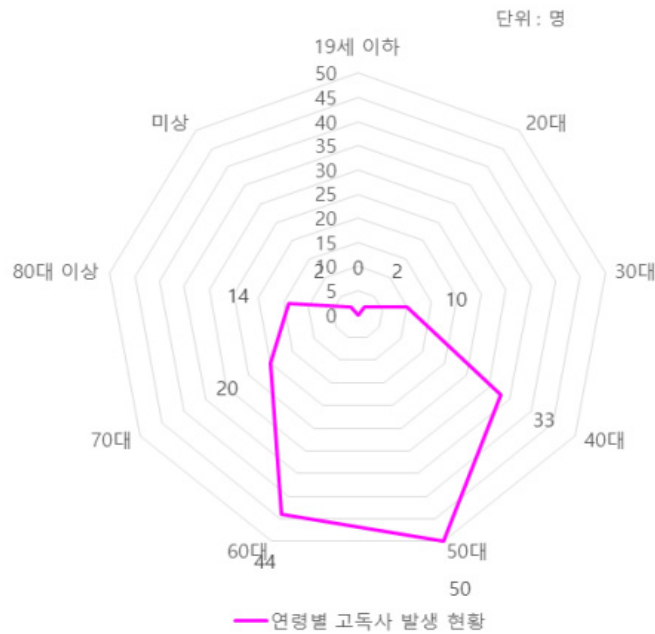
2022년 기준 고의적 자해 사망률

출처: 오정아 외(2022).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 방안

통계청(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그림 3-6] 충청남도 고독사 현황 및 전국 자살률

- 여기에 보건복지부(2022)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충남도 중장년층의 자살에 의한 고독사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출처: 보건복지부(2022). 고독사 실태조사 재구성

[그림 3-7] 연령별 고독사 현황

- 충청남도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2020)를 재분석하였음. 사회조사 데이터에서 충청남도 사례만을 선택할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고독사 위험요인으로 언급되는 경제 상태와 관계변인, 건강, 직장, 외로움과 고독감, 가정불화별로 자살원인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정신적 질환,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자살한다는 순으로 나타남. 즉, 중장년기는 경제적 문제가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외로움과 고독 등 사회적 고립과 같은 변인들도 경제적 요인 못 지 않게 삶을 극단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처: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 저자 재분석

[그림 3-8] 충청남도 중장년 자살 충동 사유

2. 중장년 1인가구 특성과 욕구분석

1) 분석 자료 및 대상

(1) 분석자료

- 한국노동패널데이터(KLIPS)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가구와 그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이 데이터는 매년 1회씩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과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한국노동패널데이터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시간 경과에 따른 추적: 매년 동일한 참가자와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에 1인 가구의 시간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15차 2012년부터 최근 24차 2021년(2022년 발표)까지 분석시기에 포함하고자 함
- 전국 대표성: 조사는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표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결과를 제공함. 특히, 이 연구에서 09년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표본을 조정하여 전체표본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함

(2) 분석 방법

- 이 연구는 15차 2012년부터 최근 24차 2021년(2022년 발표)데이터를 사용하므로 한국노동패널이 제공하는 09년 통합 횡단가구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함. 가중치를 사용한 통계량과 사용하지 않은 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충남지역 중년 1인가구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표본이 년도 별로 22-44 가구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면 가중치 없이는 특정 응답자의 값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본수가 크다면 가중치의 적용 여부가 통계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상황에서는 가중치 사용이 적절함
- 종단이 아닌 횡단 가중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현재 분석이 년도별 가구 수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임. 즉 이 연구에서 분석 목적은 각 년도별 충남 중년 1인가구의 여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각 시점의 샘플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하는 것임. 분석 도구는 Stata 17.0 Be를 사용하였음

(3) 분석 설계

- 선행연구(이석환 외, 2022: 김윤영, 2017: 2018)에 따르면, 중년 1인가구는 한 사람의 소득에 의존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음. 사회적 네트워크가 제한적일 수 있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움
- 노후 준비나 자금 모으기가 힘들 수 있어 노후 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주택 가격 상승이나 주거 환경 변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특히, 중년 1인가구 특화된 사회적 서비스나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이 중년 1인가구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다인 가구에 비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고,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에서 비껴나 있음.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중년 1인가구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을 노인 1인가구와 중년 다인가구와 비교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향후 지원 영역을 명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함. 충남지역 중장년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수를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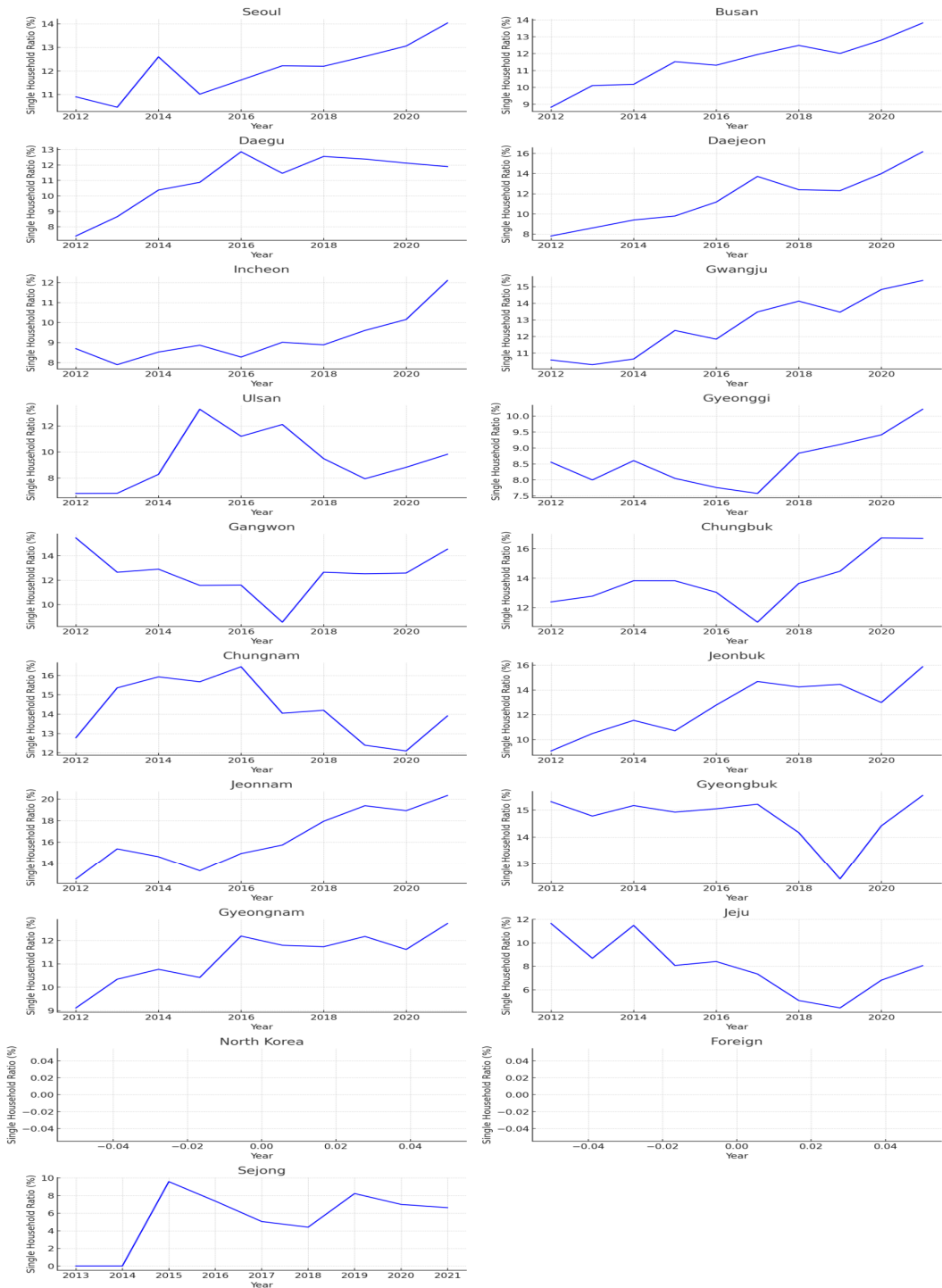
〈표 3-5〉 변수 설명

변수명	세부사항
성별	1. 남자, 2. 여자
교육	1. 고졸 미만,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혼인상태	미혼 2. 기혼유배우 3. 기혼무배우
주택형태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타
ILO 기준 경제활동	1. 취업자 2. ILO 기준 실업자 3. 비경제활동자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주/자영업자 5. 무급가족 종사자 5=무급가족 종사자

2) 분석 모집단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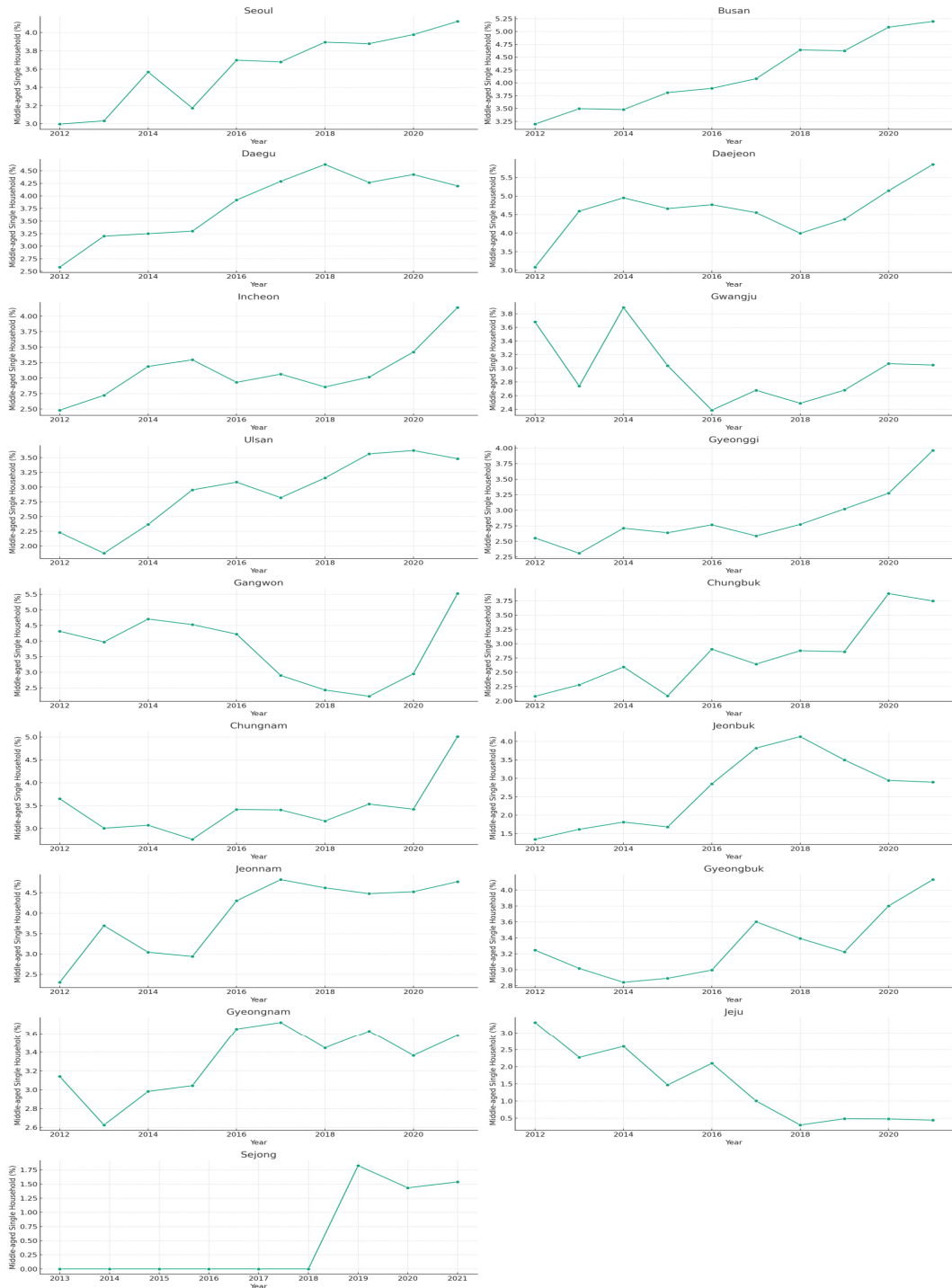
(1) 분석 모집단: 전국과 충청지역 비교

- [그림 3-9]는 전국 1인가구 비중(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은 전국적인 1인가구 비중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타난 값을 의미함
- 2012년의 1인가구 비중(전국 평균)은 약 10.50%였으며, 2021년의 1인가구 비중 (전국 평균)은 약 13.40%였기에 증가 비율은 약 2.90% 상승하였음.
- 충남 지역의 1인가구 비중 증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3%였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인 2.90%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2012년의 충남 지역의 1인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약 2.28% 포인트 높았으며 2021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음. 이 데이터는 충남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초기에 높은 1인가구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느린 증가율을 보였음을 나타냄



[그림 3-9] 전국 1인가구 비중(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 [그림 3-10]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중년 1인가구 비중(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을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2012년의 충남 중년 1인가구 비중은 3.65%였으며, 전국 평균은 2.89%였으며, 2013년의 충남 중년 1인가구 비중은 3.01%였으며, 전국 평균은 2.73%였음
- 2021년의 충남 중년 1인가구 비중은 5.01%였으며, 전국 평균은 3.86%였으며 대부분의 년도에서 충남 지역의 중년 1인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 특히 2021년에는 충남 지역의 중년 1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15%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2015년을 제외하면, 충남 지역의 중년 1인가구 비율은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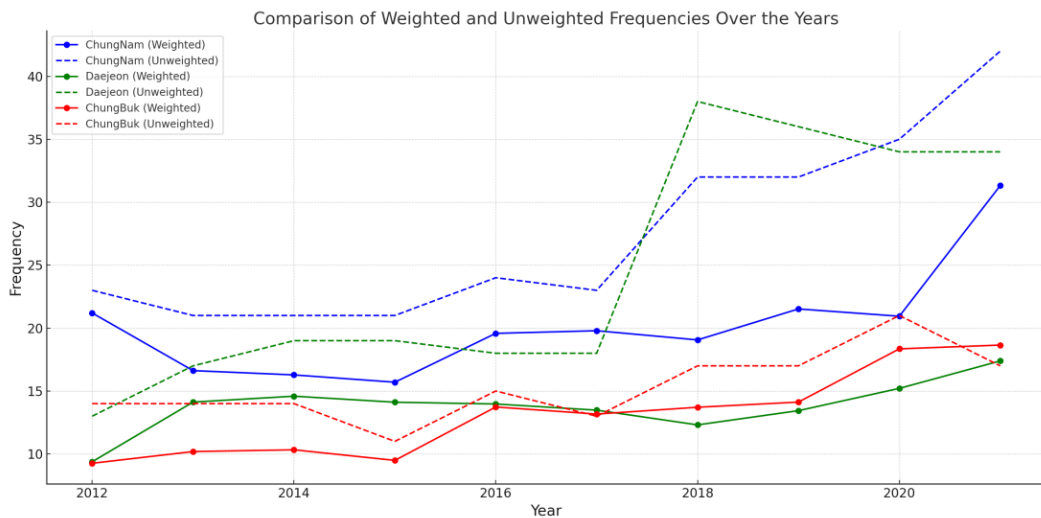


[그림 3-10] 전국 중년 1인가구 비중(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 <표 3-6>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율(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을 나타낸 것임.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충남, 대전, 충북 세 지역의 빈도수 및 백분율을 제시하였음. 이 데이터는 특정 조사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에 충남 지역은 21.20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이는 전체 응답자 중 10.49%를 차지하였음. 2021년에는 31.32의 빈도수로 상승하여 15.50%를 차지하였음. 이는 충남 지역의 응답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2012년에 대전 지역은 9.38의 빈도수를 가지며, 이는 전체 응답자 중 6.80%였음. 2021년에는 17.39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 중 12.60%임. 대전 지역 또한 응답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2012년에 충북 지역은 9.26의 빈도수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 중 7.07%였음. 2021년에는 18.6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 중 14.24%임. 충북지역도 응답자 수가 증가하였음
- 세 지역 모두 응답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2021년에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기록하였고, 대전과 충북 지역이 그 뒤를 따랐음. 통합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는 실제 지역별 인구나 대상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그림3-11]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충남, 대전 그리고 충북 세 지역의 통합표본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빈도수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실선은 통합표본 가중치가 적용된 빈도수를, 점선은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빈도수를 나타냄. 세 지역에서는 통합표본 가중치의 적용 여부에 따른 빈도수 차이가 있었음. 통합표본 가중치의 목적은 표본이 모집단을 올바르게 대표하도록 하는 것임. 이 가중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 특성을 반영하는 빈도수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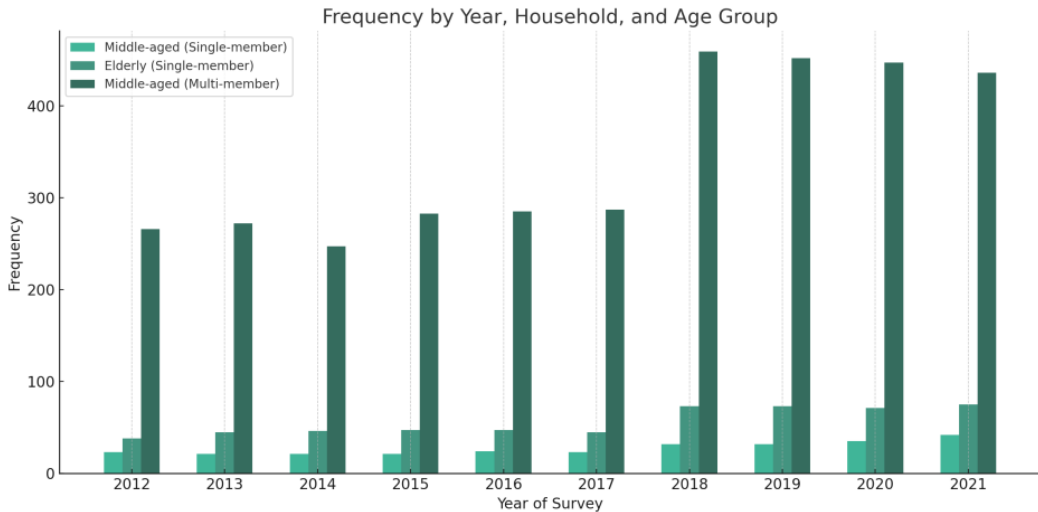
〈표 3-6〉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율(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조사년도	충남 (표본수)	충남 (백분율)	대전 (표본수)	대전 (백분율)	충북 (표본수)	충북 (백분율)
2012	21.2	10.49	9.38	6.8	9.26	7.07
2013	16.62	8.23	14.12	10.23	10.19	7.78
2014	16.28	8.06	14.59	10.57	10.33	7.89
2015	15.7	7.77	14.11	10.22	9.49	7.24
2016	19.58	9.69	13.97	10.12	13.73	10.48
2017	19.79	9.8	13.48	9.76	13.17	10.05
2018	19.06	9.44	12.31	8.92	13.71	10.47
2019	21.52	10.65	13.44	9.74	14.12	10.78
2020	20.94	10.37	15.21	11.02	18.35	14.01
2021	31.32	15.5	17.39	12.6	18.65	14.24
합계	202.01	100	138.0	100	131.0	100



[그림 3-11]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율(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 위 [그림 3-12]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충남, 대전 그리고 충북 세 지역의 통합표본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빈도수 비교를 막대그래프를 통해 통해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2] 충남, 대전, 충북 중년 1인가구 빈도수와 백분을 막대그래프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2) 분석 모집단: 충남 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와의 가중치 적용 비교

- 이 연구는 2012년 데이터부터 사용하므로 한국노동패널이 제공하는 09년 통합 횡단가구가중치를 사용하고자 함. 가중치를 사용한 통계량과 사용하지 않은 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음. 이 연구에서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충남지역 중년 1인가구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표본이 년도 별로 22-44 가구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면 가중치 없이는 특정 응답자의 값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본수가 크다면 가중치의 적용 여부가 통계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상황에서는 가중치 사용이 적절함

- 종단이 아닌 횡단 가중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현재 분석이 년도별 가구 수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임. 즉 이 연구에서 분석 목적은 각 년도별 충남 중년 1인가구의 여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각 시점의 샘플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하는 것임
- <표 3-7>은 충남의 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를 가중치 적용 전 후 백분율을 비교한 표임. 즉, 1인 가구 중년세대(40세~64세)의 데이터, 1인 가구 노인세대(65세 이상)의 데이터, 다인 가구 중년세대(40세~64세)의 데이터를 가중치 전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각 연도별로 세 가지 카테고리 (단독 가구 중년세대, 단독 가구 노인세대, 다인 가구 중년세대)의 빈도수가 그래프에 나타나 있음. 연도별 가구 및 연령 그룹에 따른 빈도수가 분석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h_region=11 지역의 연령 그룹 및 가구원 수에 따른 빈도수를 분석하였음. 조사된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 분석 결과, 단독 가구 중년세대의 빈도수는 2012년 23에서 2021년 42로 증가하였음. 2018년부터의 증가가 눈에 띈. 단독 가구 노인세대는 2012년 38에서 2021년 75로 증가하였으며, 다인 가구 중년세대는 2012년 266에서 2021년 436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부터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
- 최근 몇 년 동안 중년 및 노인세대의 단독 가구 및 다인 가구의 빈도수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음. 이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가족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중년 1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소 경향이 있었고, 2021년에는 약간 증가하였음. 노인 1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음. 2018년부터는 감소 경향을 보였음. 중년 다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감소 경향을 보였음

〈표 3-7〉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전후 백분율 비교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조사 년도	중년 1인 가구	중년 1인가구 (가중치 적용 전 백분율)	중년 1인가구 (가중치 적용 후 백분율)	노인 1인 가구	노인 1인가구 (가중치 적용 전 백분율)	노인 1인가구 (가중치 적용 후 백분율)	중년 다인 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적용 전 백분율)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적용 후 백분율)
2012	23.0	8.4	10.5	38.0	6.8	9.6	266.0	7.8	9.7
2013	21.0	7.7	8.2	45.0	8.0	9.6	272.0	7.9	9.5
2014	21.0	7.7	8.1	46.0	8.2	10.1	247.0	7.2	8.7
2015	21.0	7.7	7.8	47.0	8.4	9.7	283.0	8.2	9.7
2016	24.0	8.8	9.7	47.0	8.4	9.8	285.0	8.3	9.8
2017	23.0	8.4	9.8	45.0	8.0	9.8	287.0	8.4	10.2
2018	32.0	11.7	9.4	73.0	13.0	10.6	459.0	13.4	10.8
2019	32.0	11.7	10.7	73.0	13.0	10.9	452.0	13.2	10.9
2020	35.0	12.8	10.4	71.0	12.7	9.7	447.0	13.0	10.4
2021	42.0	15.3	15.5	75.0	13.4	10.2	436.0	12.7	10.4
Total	274.0	100.2	100.0	560.0	99.9	100.0	3434.0	100.1	100.0

- 중년 1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소 경향이 있었고, 2021년에는 약간 증가하였음. 노인 1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감소 경향을 보였음
- 중년 다인가구 집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가중치 적용 시 비율 증가 경향이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감소 경향을 보였음. 요약하자면, 초기 연도에는 가중치 적용 시 각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연도에는 감소하였음. 이는 가중치의 적용 방법, 기준 혹은 해당 연도의 데이터 특성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표 3-8〉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가중치 전후 표본차이 비교

조사년도	중년 1인가구 차이	노인 1인가구 차이	중년 다인가구 차이
2012	2.1	2.8	1.9
2013	0.5	1.6	1.6
2014	0.4	1.9	1.5
2015	0.1	1.3	1.5
2016	0.9	1.4	1.5
2017	1.4	1.8	1.8
2018	-2.3	-2.4	-2.6
2019	-1.0	-2.1	-2.3
2020	-2.4	-3.0	-2.6
2021	0.2	-3.2	-2.3

(3) 분석 모집단: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교육, 혼인상태(가중치)-장애, 고용, 일자리 등

- 〈표 3-9〉 충남지역의 중년 및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의 성별,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주택 형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 비율을 조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위 네가지 카테고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산출하여 나타냄
- 중년 1인가구의 성별 분포에서 남자의 비율은 39.51%이고, 여자의 비율은 60.49%임. 노인 1인가구의 성별 분포에서 남자의 비율은 85.11%이고, 여자의 비율은 14.89%임. 중년 다인가구의 성별 분포에서 남자의 비율은 20.62%이고, 여자의 비율은 79.38%임. 중년 1인가구의 혼인 상태 분포에서 미혼의 비율은 12.2%, 기혼유배우의 비율은 0%, 기혼무배우의 비율은 87.8%임. 노인 1인가구의 혼인 상태 분포에서 미혼의 비율은 0%, 기혼유배우의 비율은 0%, 기혼무배우의 비율은 100%임

- 중년 1인가구의 교육 수준 분포에서 고졸미만의 비율은 37.7%, 고졸의 비율은 53.1%, 전문대이상의 비율은 9.2%임. 노인 1인가구의 교육 수준 분포에서 고졸미만의 비율은 88.8%, 고졸의 비율은 9.1%, 전문대이상의 비율은 2.04%임
- 중년 1인가구의 주택 형태 분포에서 자가의 비율은 42.23%, 전세의 비율은 16.71%, 월세의 비율은 20.16%, 기타의 비율은 20.91%임. 노인 1인가구의 주택 형태 분포에서 자가의 비율은 53.46%, 전세의 비율은 8.8%, 월세의 비율은 8.88%, 기타의 비율은 28.86%임. 중년 다인가구의 주택 형태 분포에서 자가의 비율은 75.33%, 전세의 비율은 8.59%, 월세의 비율은 12.11%, 기타의 비율은 3.97%임
- 충남지역 중년 1인가구는 대부분 기혼무배우 상태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1인 가구를 구성함. 주택 형태는 자가와 월세가 주를 이룸. 충남지역 노인 1인가구는 모두 기혼무배우 상태로,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음. 주택 형태에서는 자가와 기타가 주를 이룸. 충남지역 중년 다인가구는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주택 형태는 대부분 자가임

〈표 3-9〉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인구사회적 특징(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비율)

		중년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성별	남자 (%)	39.51	85.11	20.62
	여자 (%)	60.49	14.89	79.38
혼인상태	미혼	12.2	0	1.1
	기혼유배우	0	0	86.2
	기혼무배우	87.8	100	12.6
교육수준	고졸미만	37.7	88.8	27.9
	고졸	53.1	9.1	45.4
	전문대이상	9.2	2.04	26.7
주택형태	자가	42.23	53.46	75.33
	전세	16.71	8.8	8.59
	월세	20.16	8.88	12.11
	기타	20.91	28.86	3.97

- 취업 상태 비율은 중년 1인가구는 82.72%로,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였으며 노인 1인가구는 25.64%로,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취업자 비율을 보였음. 중년 다인가구는 66.12%로, 중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 사이의 비율을 나타냈음
- ILO기준 실업 상태 비율은 세 집단 모두 비슷한 범위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년 1인가구와 중년 다인가구는 동일한 1.27%를 기록했음. 노인 1인가구는 0.26%로 약간 더 낮은 비율을 보였음
- 비경제활동 상태 비율은 노인 1인가구는 7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년 다인가구는 32.61%로, 중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 사이의 비율을 보였음. 중년 1인가구는 16.01%로,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결론적으로, 중년 1인가구는 취업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 상태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노인 1인가구는 취업 상태의 비율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중년 다인가구는 두 부분 모두 중간 값을 보였음. 하지만, 취업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다음의 종사상 지위를 통해 다시 살펴볼 수 있음
- 중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34.60%와 45.09%로 높게 나타났음. 중년 다인가구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이 53.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21.36%로 나타났음.
- 노인 1인가구에서 상용직의 비율은 1.71%로 매우 낮았으며 중년 다인가구에서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7.38%로 중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중년 다인가구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 1인가구에서는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중년 1인가구에서는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7.77로 일용직 비율이 노인보다도 높았기에 이에 대책이 절실함. 즉,

중년 1인가구의 일자리의 질은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3-10〉 충남중년·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경제활동 및 종사상 지위(09년 횡단모수기중치 적용 비율)

		중년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ILO 기준 경제활동	취업자	82.72	25.64	66.12
	ILO기준 실업자	1.27	0.26	1.27
	비경제활동자	16.01	74.11	32.61
종사상 지위	상용직	31.9	1.71	53.09
	임시직	5.73	25.95	10.46
	일용직	27.77	26.51	7.71
	고용주/자영업자	34.6	45.09	21.36
	무급가족 종사자	0	0.74	7.38

● 아래 〈표 3-11〉은 중년 및 노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연도별 가구 분포를 단순 빈도로 나타낸 것임

〈표 3-11〉 중년 및 노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연도별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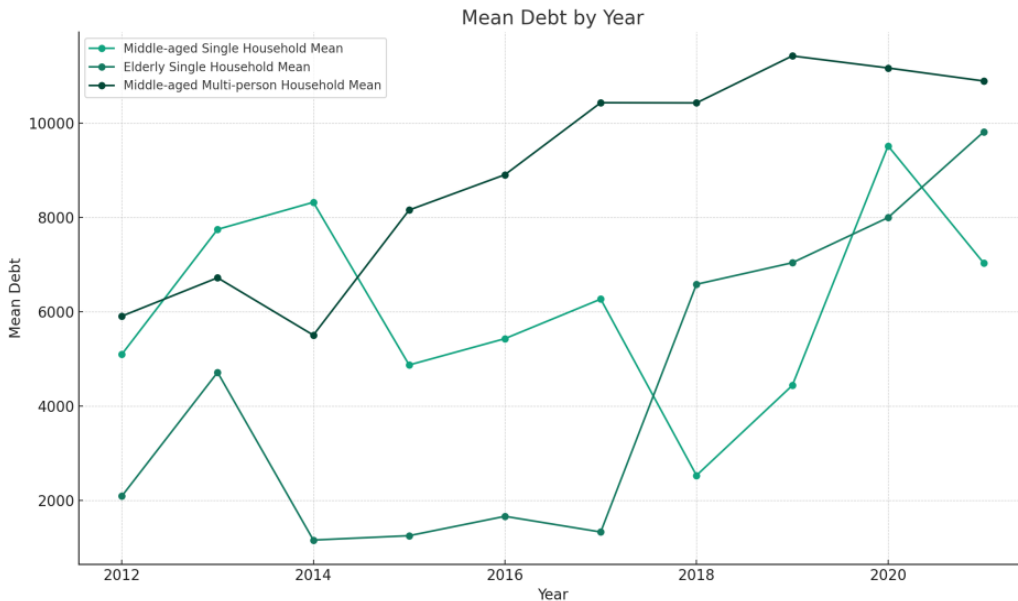
Year	중년1인가구 (Male)	중년1인가구 (Female)	노인 1인가구 (Male)	노인 1인가구 (Female)	중년 다인가구 (Male)	중년 다인가구 (Female)
2012	10	13	6	32	237	29
2013	8	13	8	37	247	25
2014	7	14	10	36	225	22
2015	9	12	10	37	260	23
2016	10	14	11	36	261	24
2017	9	14	11	34	262	25
2018	14	18	13	60	420	39
2019	13	19	11	62	415	37
2020	14	21	9	62	410	37
2021	20	22	9	66	401	35

3) 소득, 부채, 노동시장 여부 분석

- 중년 1인가구의 부채액은 2012년 5,100에서 시작하여 2021년 7,032.143까지 증가함. 2018년에는 2,533.333으로 급감한 후, 다시 상승하였으며, 10년 평균은 6,007.927임. 노인 1인가구의 부채액은 2012년 2,092.857에서 시작하여 2021년 9,820까지 상승함. 2014년과 2015년에는 1,162.5와 1,255로 낮았으며, 10년 평균은 4,643.684임. 중년 다인가구의 부채액은 2012년 5,910.526에서 시작하여 2021년 10,895.7까지 상승함
- 2015년 이후로는 8,00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0년 평균은 9,475.721임. 10년간 중년 다인가구의 부채 평균이 가장 높았고, 모든 그룹의 부채는 증가 추세를 보임. 노인 1인가구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표 3-12〉 중년/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부채액 평균

Year	중년 1인가구 Mean	노인 1인가구 Mean	중년 다인가구 Mean
2012	5100.0	2092.857	5910.526
2013	7750.0	4718.571	6724.049
2014	8325.0	1162.5	5507.619
2015	4875.0	1255.0	8160.357
2016	5433.333	1666.0	8909.091
2017	6271.429	1333.333	10435.96
2018	2533.333	6585.714	10431.88
2019	4440.0	7042.857	11427.96
2020	9520.0	8000.0	11172.7
2021	7032.143	9820.0	10895.7
Total	6007.927	4643.684	9475.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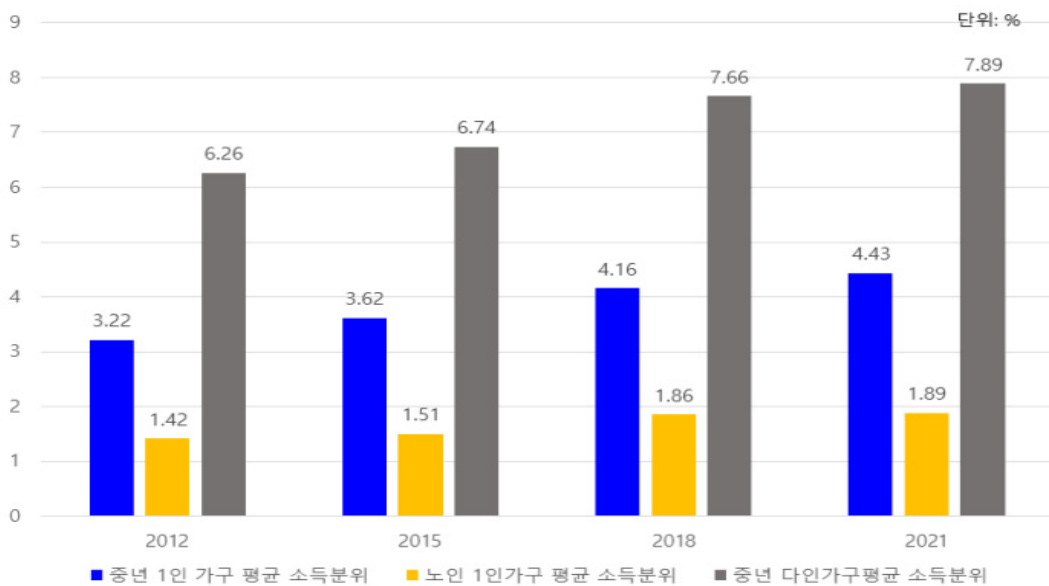


[그림 3-13] 중년/ 노인 1인가구, 중년 다인가구 부채액 평균
(2012-2021년, 09년 횡단모수가중치 적용)

- 중년 1인가구의 2012년 소득분위 3.22에서 시작하여, 2021년 4.43으로 1.2 포인트 상승함. 노인 1인가구의 2012년 소득분위 1.42에서 시작하여, 2021년 1.89로 0.5 포인트 상승함. 중년 다인가구의 2012년 소득분위 6.26에서 시작하여, 2021년 7.89로 1.6 포인트 상승함
- 중년 1인가구는 9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높은 평균 소득분위를 보임. 중년 다인가구는 그 다음으로 높은 소득분위를 보였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큼. 노인 1인가구는 계속해서 가장 낮은 소득분위를 보임. 세 집단 간의 소득분위 차이는 각 집단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 이 차이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표 3-13〉 세 집단의 년도별 평균 소득분위

Year	중년 1인 가구 평균 소득 분위	노인 1인가구 평균 소득 분위	중년 다인가구평균 소득 분위
2012	3.22	1.42	6.26
2013	3.20	1.53	6.64
2014	3.15	1.54	6.93
2015	3.62	1.51	6.74
2016	3.70	1.50	6.77
2017	3.96	1.50	7.06
2018	4.16	1.86	7.66
2019	4.07	1.89	7.82
2020	4.06	1.82	7.76
2021	4.43	1.89	7.89



[그림 3-14] 세 집단간 평균 소득분위

4) 건강, 삶의 만족도 분석

- <표 3-14>는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각 그룹별 년도별 평균을 낸 값임. 중년 1인가구는 2012년에는 평균 건강상태 점수가 2.99였으나, 2021년에는 3.07로 소폭 증가하였음. 10년 동안의 평균 건강상태 점수는 3.05였음
- 노인 1인가구는 2012년에는 2.38이었던 평균 건강상태 점수가 2021년에는 2.49로 증가하였음. 10년 간의 평균은 2.46으로 나타났음. 중년 다인가구는 중년 다인가구의 건강상태는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10년 동안의 평균 점수는 3.29였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년 다인가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상태 만족도를 보였으며, 적어도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노인 1인가구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음

<표 3-14> 건강상태 조사 결과

조사년도	중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중년 다인 가구
2012	2.99	2.38	3.26
2013	2.74	2.59	3.24
2014	2.78	2.46	3.23
2015	3.14	2.37	3.40
2016	2.99	2.50	3.18
2017	3.09	2.30	3.28
2018	2.93	2.48	3.23
2019	3.33	2.43	3.39
2020	3.31	2.59	3.33
2021	3.07	2.49	3.33
Total	3.05	2.46	3.29

- 중년 1인가구의 2012년 주거만족도는 2.91에서 시작하여 2021년 3.26까지 상승. 10년 평균 만족도는 3.23임. 노인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는 2012년 3.20에서 시작, 2021년 3.5까지 상승. 10년 평균 만족도는 3.29임
- 중년 다인가구의 주거만족도는 2012년 3.14에서 시작, 2021년 3.53까지 상승. 10년 평균 만족도는 3.31임. 세 집단 모두 주거만족도는 상승 추세에 있음. 노인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 1인가구의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중년 1인가구의 2012년 가족관계 만족도 3.01에서 시작, 2021년 3.33까지 상승. 10년 평균 만족도는 3.30임. 노인 1인가구의 2012년 3.26에서 시작, 2021년 3.53까지 상승. 10년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는 3.38에 도달함
- 중년 다인가구의 2012년 3.53에서 시작, 2021년 3.73까지 상승. 10년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는 3.58임. 세 집단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는 상승 추세이며 중년 다인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년 1인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5〉 가족/ 주거 만족도 데이터 요약

조사년도	중년 1인 주 거만족도	노인 1인 주 거만족도	중년 다인 주 거만족도	중년 1인 가 족만족도	노인 1인 가 족만족도	중년 다인 가 족만족도
2012	2.91	3.20	3.14	3.01	3.26	3.53
2013	2.86	3.18	3.16	3.12	3.33	3.57
2014	3.25	3.11	3.17	3.18	3.29	3.50
2015	3.15	3.20	3.31	3.28	3.44	3.54
2016	3.30	3.31	3.32	3.40	3.35	3.58
2017	3.39	3.36	3.24	3.21	3.42	3.51
2018	3.17	3.32	3.28	3.37	3.41	3.55
2019	3.37	3.29	3.46	3.50	3.38	3.63
2020	3.44	3.40	3.44	3.54	3.37	3.62
2021	3.26	3.55	3.53	3.33	3.53	3.73
Total	3.23	3.29	3.31	3.30	3.38	3.58

- 중년 1인가구의 전체 평균 사회적 관계 만족도 3.41. 2012년 3.16에서 2021년 3.32까지 변동. 노인 1인가구의 전체 평균 사회적 관계만족도는 3.28. 2012년 3.29에서 2021년 3.43까지 변동. 중년 다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만족도 전체 평균 3.52로 가장 높음. 2012년 3.50에서 2021년 3.46까지 변동
- 중년 다인가구는 가장 높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보였고, 중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최근 중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중년 1인가구의 전체 평균 전반적 만족도 3.15. 2012년 2.86에서 2021년 3.23까지 변동을 보여주고 있음. 노인 1인가구의 전반적 만족도 전체 평균 3.04. 2012년 3.00에서 2021년 3.29까지 변동을 보여줌
- 중년 다인가구의 전반적 만족도는 전체 평균 3.30. 2012년 3.24에서 2021년 3.39까지 변동을 보여주고 있음. 중년 다인가구는 전반적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중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중년 1인가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표 3-16〉 각 집단별 사회적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조사년도	중년 1인 사회적만족도	노인 1인 사회적만족도	중년 다인 사회적만족도	중년1인 전반적만족도	노인 1인 전반적만족도	중년 다인 전반적만족도
2012	3.16	3.29	3.50	2.86	3.00	3.24
2013	3.37	3.26	3.56	2.97	3.00	3.21
2014	3.32	3.25	3.48	3.07	3.02	3.20
2015	3.56	3.24	3.58	3.20	3.04	3.26
2016	3.50	3.31	3.52	3.11	3.02	3.30
2017	3.43	3.20	3.50	3.00	2.92	3.28
2018	3.42	3.25	3.55	3.24	3.02	3.29
2019	3.44	3.30	3.58	3.24	3.01	3.41
2020	3.56	3.31	3.48	3.40	3.12	3.35
2021	3.32	3.43	3.46	3.23	3.29	3.39
Total	3.41	3.28	3.52	3.15	3.04	3.30



제4장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1. 조사개요
2. 심층인터뷰의 주요 결과
3. 중장년 1인가구 심층면접 결과



제4장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경험 심층면접

1. 조사개요

1) 대상자 선정 방법

- 중장년 1인가구 고립 연구를 위한 현장 인터뷰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고려해서 선정함. 인터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샘플링을 위해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서 지자체 공무원, 복지관의 중장년 사업 담당자 등에게 섭외를 의뢰하였고, 임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질적연구는 소규모로 실시되므로, 1)충남 지역의 거주자, 2) 중장년(40~64세)의 연령, 3) 1인가구로 혼자 거주자, 4)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현격히 적어서 고립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5) 저소득층으로 복지의 대상자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를 인터뷰 참여자로 최종 선정함

2) 인터뷰 참여자 주요한 특징

- 중장년 1인가구의 대상자와 직접 대면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연구진은 인터뷰 참여자의 가정을 모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함.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한 특징은 <표 4-1>과 같음

〈표 4-1〉 인터뷰 참여자 주요한 특징

인터뷰참여자	지역	성별	나이(세)	직업
P1	서천	남성	48	무직
P2	청양	남성	58	일용직
P3	아산	남성	59	파트타임(음악)
P4	아산	남성	52	무직
P5	아산	남성	58	무직
P6	천안	여성	54	파트타임(노래방)
P7	천안	남성	58	무직
P8	천안	여성	53	무직
P9	천안	여성	60	무직

2. 심층인터뷰의 주요 결과

-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표 4-2〉와 〈표 4-3〉에 제시되었음. 본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코딩 결과는 〈표 4-2〉대로 크게, 중장년의 1인가구 고립 과정, 현재 중장년으로서 생활, 생활에 필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4-2〉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의 분류 코딩 결과

대분류	중분류	개방 코드
1인가구로 고립 과정	어렸을 때 생활	어머니, 아버지, 가난, 가족 갈등
	다양한 청년 중장년의 인생	결혼, 독신, 직업, 수도권, 일자리, 귀향
	인생의 주요한 사건 발생	사고, 질병, 수술 마약, 이혼, 장애, 가출,
현재 중장년 1인가구의 생활	거주 상태	수도권, 일자리, 귀향, 결혼, 타지
	경제 생활	돈, 빚, 대출, 추심, 기초생활수급비, 부족한 지역 일자리, 음악, 미용, 한부모
	건강 상태	수술, 심장질환, 코로나, 재활, 불안감, 우울증, 암, 당뇨, 알코올 중독, 불면증, 마약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녀, 아내, 남편, 독신, 단절, 가족 해체
	복지 이용 경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공무원, 수급자, 후원품, 절차, 시간
생활 필요사항	다양한 요구	일자리, 소일거리, 건강 관리, 자녀 만남, 집, 이동 지원, 여성안전 주거

-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사항은 다음 표에 제시되었음.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장년이 되기 전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주로 사고나 이혼, 장애 등으로 다양했고 현재 중장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경제, 건강, 사회적 교류의 측면에서 대상자별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했고 그 내용은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도출되었음

〈표 4-3〉 인터뷰 참여자 대상자별 주요한 연구 결과 요약

인터뷰 참여자	주요 사건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생활 요구
P1	-산재사고	-과다빚 -생활비 어려움	-신체나쁨, 정신 우울, 화	-가족 교류 부족 -친구만 가끔	-일자리(운전) -차량
P2	-사업 부도 -이혼	-저신용 -일용직	-나쁨	-이웃 친구 -아이 육아	-일자리 -경제활동시 육아 지원 -주거
P3	-마약수송책 도피 생활 -복역	-수급비 생활 -빚으로 강제추징	-마약 중독 정신과 치료 경험	-파트너 및 음악활동 관계자 등	-음악활동 발전
P4	-아내바람 이혼 -코로나백신부작용	-수급비 생활	-심장질환	-본가 가족 교류 -자녀 미교류	-자녀 만남
P5	-선천성 언어장애	-수급비 생활	-언어재활 -허리 목 재활치료	-형, 친구와 교류 -교회생활	-없음
P6	-남편바람, 이혼	-수급비 생활 -노래방도우미	-정신질환의심 -높은 불안감	-가족외 교류적음	-미용 일자리 -자녀 만남
P7	-발달장애(추정)	-수급비로 생활	-암수술 -당뇨	-이웃과 가족과 교류	-공공형 일자리 -쉬운 소일거리
P8	-이혼 -대장수술	-수급비 생활	-우울증 -장루장애	-요양병원 친구	-파트타임 일자리 -여성안전 주거
P9	-남편폭력 가출, 이혼	-수급비 생활	-알코올중독, 우울증, 불안감	-요양병원 친구	-버스 교통비

3. 중장년 1인가구 심층면접 결과

1)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까지의 과정

(1) 어렸을 때 생활: 가정 내 갈등

-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어렸을 때에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부모나 형제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알콜 등의 문제로 어려서부터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술 먹고 그렇게 사람을 때렸다고 그러면서 정신 이상이 된 게 그 후에... 어머니도 알고 보면 술하고 폭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도 지금 말하자면 그 꼴인 거야. 술하고 폭력을 지가 쓰는 거야. 거기서 희생양은 나왔고”(P1)

- 일부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에게 당한 모욕이나 폭력 등 서운한 일에 대해 나쁜 기억이 있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가족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한 참여자는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일로 인해 동생에게 화를 풀기도 했다고 진술함

“동생보다 일 못 한다고 많이 맞았고 이렇게 물을 척에 가서 지하수 물 펄펄 물 있잖아요. 네 그 물을 떠오라고 그러면은 떨어갈 때는 주전자 가벼우니까 금방 가요. 근데 올 때는 무거우니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무거우니까 이렇게 쉬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확 마당에다 던져버려. 다시 떠 오라고. 또 또 나중에 또 다시 던져버려. 또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욕 바가지를 하면서 그냥 먹은 거야...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한 번씩 오면 신발이 하얀 신발이 검정 신발이 돼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나는 나름대로 엄마가 그렇게 때려버릴 테니까. 언니도 그렇게 같이 오빠도 똑같이 이거 바로 밑에 동생이 만만하게 보고 나한테 때리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 동생은 대단한데 나 한 번 화가 확 올라오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행복을 시켜놔야만이 이렇게 내가 막 당했던 걸 푸는 거지. 동생한테.”(P8)

- 그러나, 소수의 인터뷰 참여자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삐뚤어진 적도 있다고 진술함

“사춘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불평불만을 가져오게 되는 원망이 많이 있어. 저도 이렇게 시기에 또 우리 제 나이 또래 시기에는 이런 진짜 혼자만 진짜 말대로 그냥 잘 진짜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저희 셋 중에서도 아빠가 일단은 돌아가셨는데 제 일 이뻐했잖아요. 아빠가 저기 하나까 엄마도 솔직히 잘 저기 키워 주시고 했지만 엄마 되게 좀 성향이 되게 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랑 남동생은 진짜 되게 바르게 잘 자랐어요... 엄마가 잘했는데 일부러 솔직히 이렇게 삐뚤리고 더 나갔어요. 네 청개구리라는 동화 있죠. 나중에는 후회되지만 근데 그것도 엄마의 성향을 알고...나를 때려주기도 했고 뭐든 다 했는데 그거 일부러 솔직히 엄마 반항하면서 더 이렇게 일부러 삐뚤게 나간 거예요.”(P6)

(2) 다양한 청년 중장년의 인생

- 인터뷰 참석자들은 청년 및 중장년 시절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일부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는 등의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경험했음.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결혼을 통해서 충남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했음. 한 남성 참여자는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가서 운전을 하면서 생활했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함

“레카 일을 주로 했었고 그거 하다가 카키리 하다가 메카 하다가 추대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야 추레라 하다가 추레라가 또 이제 장시간 운전을 많이 하고 네 제가 추레라 일을 하면서. 저 아래 끝에 여수 거기서 염산을 실어서 탱크로 추레라 탱크로리예요. 염산을 실어서 뭐 안산 수원 인천 네 그런 데다가 이제 퍼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일 박 이 일이에요”(P1)

- 여성 인터뷰 참여자들도 식당, 여인숙, 공사장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했다. 한 여성 참여자는 식당에서 써빙 일을 하고 공사장에서 힘든 육체노동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진술함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옛날 식당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노가대도 뛰고 막 그랬어요.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많이 받아가고 식당도 하고.”(P8)

- 그러나 두 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원래 장애가 있어 청년기에도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함. 한 참여자는 선천성 언어 장애를 앓고 있었고, 다른 참여자는 약간의 발달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부탄가스를 배달하는 일도 과거에는 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이 두 분은 다행히 형제가 있어서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거나 동거하는 등 일정 부분 도움을 제공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형제가 사망하면서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함

“(부탄가스를)공장에 트럭이 들어오면서 거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차가 다니면서 거기다 이렇게 실어주잖아....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게 2년째인가 3년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기억은 잘 못해요.”(P7)

(3) 인생의 주요한 사건 발생

● 이처럼 청년 중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남. 한 참여는 인생이 ‘나락(那落)’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크게 나빠지거나 또는 실직이나 배우자의 불륜 등과 같은 가족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했음. 일부는 선천적인 장애를 겪으면서 사기나 화재를 당하는 등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분석됨. 이 사건들은 중장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줘서 지속적으로 삶을 어려움의 질곡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겪은 사고는 다양한데 한 참여자는 30대에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로 안면함몰 등의 심각한 사고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음. 그는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등으로 인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함

“사고 전에는 평범한 인생이고 사고 후에는 나락인 거죠.... (사고) 없을 때는 몸이 성했으니까 내가 일하고 노력하면 돼요. 먹고 살아 가요. 내가 한 만큼 네 그 당시에든 저는 어디 가서 취직을 할 때 어렵게 취직해 본 적도 없고 면허 딸 때도 거의 다 한 번에... 제가 서른살 넘어서 다치고 나서 몸이 이제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안 좋았거든요...한 달 동안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 쪽에 충격이 이제 여기는, 여기는 현실적으로 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하면 표가 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그게 그것도 잘 몰랐고 그게 이제 몸도 붓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후유증일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다치면 이게 몸의 신경이 제일 그 정신이 좀 나갔는지 그 감지를 좀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정신을 좀 못 차려요.”(P1)

● 다른 참여자는 코로나19 기간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기능이 크게 저하되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고 말함.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후에 한달 후에는 숨을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함. 의사는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인 범위를 한참 밑돌면서 심장마비로 인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였고, 심장마비 상태가 될 때에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몸에 품고 다니고 있었음. 그는 2-3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담담히 말했지만, 돌연사의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었음

“화이자 1차를 맞았어요. 8월 9일 날 그해 여름 21년 8월 9일날 하여튼 백신 1차를 맞았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머리가 갑자기 팽 돌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은 3-4일이면은 감기기 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일주일도 넘었는데도 몸이 막 엄청 어디가 아프지 모르게 아프고 죽겠는 거야. 그러다가 딱 십이 일째 되던 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기능이 30% 정도 밖에 안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혹시 저 대단히 죄송한데 고개 돌리다가 돌아가셔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저 제 잘못 아닙니다. 지금 몸 상태가 이러합니다.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세요. 왜요? 큰 병원으로 왜 가요 제가 그래야 심장이식 순서가 빨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장님 제가 심장 이식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원장님은 이 사람 100%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다라고 해갖고 바로 신고도 했던 말이에요 질병청에다... 생명이나 보존해가면서 좀 살면 좋고. 아니면 뭐 지금 저는 50% 벽 생존율, 50%대를 지금 넘고 있거든요... 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2-3년 살 생존 확률이 오십 프로래요. 오 년 살 사오년 살 생존률이 30%. 근데 저는 지금 50%대 벽을 넘고 있거든요. 저번에 7월 6일날 픽 쓰러지면서 나 이 벽 못 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났겠구나 했는데. 죽지는 않은 모양이죠.”(P4)

- 이 참여자는 심장 질환에 걸리면서 건강이 아픈 상황에서 아내가 외도를 하였음. 이후에 합의 이혼을 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연쇄적으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녀와의 관계마저 단절되었음

“상관남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어차피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송을 할 때까지 살아 있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이혼 소송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안 했어요. 아기 엄마가 중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머리 쓰냐? 지금 어 니가 저기 안 할려고 이혼 소송 안 당하고 저기 위자료 안 물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로 아기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이만저만해서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라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없더라도 좀 똑똑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P4)

- 다른 여성 참여자는 남편이 노름과 바람 등으로 이혼을 한 후에 혼자서 여러 경제활동을 하면서 백방 노력을 했음. 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해 장이 썩어가면서 장을 제거하는 8시간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음.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이후에 다행히 살아났고, 결국 장을 대체하는 주머니를 몸에 차고 평생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우리 신랑하고도 우리 신랑이 노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가지고 그 여자가 좋다고 해서 돼가지고 이제 협의 이혼 한 거예요... 이혼하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럼요... 안 먹고 일하다 보니까 일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혼하고 이제 안 먹고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장이 썩어서 터졌다는 거예요...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장루를 빼놔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으면 음식물이 어디로 나와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니까 이거 주머니도 차고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영구 장애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영원한 장애로 떨어졌잖아요. 복원 수술이 안 돼요... 평생 이렇게 소실이 안 되면 평생 이렇게 걸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P8)

- 한 참여자는 특이하게 마약 수송책으로 피의자가 되어서 장기간 도주생활을 하며 생활했던 경험을 진술하였음. 이 참여자는 연주생활을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댔고, 본인이 마약을 운반한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장기간 형사에게 쫓기는 생활을 한 것으로 진술함. 안정적인 주거가 없이 형사의 추적을 피해서 여기, 저기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임. 결국 형사에게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마약은

손대지 않고 있지만, 생활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

“거기 악기 가져와서 이제 형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언제 잡혀도 잡힐 거야. 아이고 그냥 친구한테 왔지. 그래 너 여기서 먹고 자라. 이제 그 따라왔지 벌써 우리 저 어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있었는데 형사들이 쳐들어. 그래 갖고 이제 도망 온 거예요.... 형사랑 나 일하던 때 쳐들어오는 걸 나 미리 정보를 내가 알아갖고 다른 쪽에서 딱 있어. 아니나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P3)

- 한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장년 참여자도 크고 작은 인생의 파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친형과 함께 생활하던 한 남성 참여인은 우연히 암을 발견해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함께 살던 친형이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로 홀로 생활하고 있었음

“그 의사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암을 잘라낼 거냐 아니면 그냥 갖고 다길 거냐고 그래서 아이 어차피 발견했으니까 그냥 잘라버리 잘라야죠. 잘라버리고 그냥 근데 이제 확실하게 잘라냈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이 큰 거는 다 잘라냈는데..그걸로 이제 그걸로는 자질한 거는 이제(P7)

2) 현재 중장년 1인가구의 생활

(1) 거주 상태: 현재 충남에 살기까지

- 인터뷰 참여자들이 충남에서 현재 거주하게 된 이유는 다양했다.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에서 이사를 갔다가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고향인 충남으로 귀향한 경우임. 다음으로는 원래 충남이 고향으로 이곳에서 계속 생활해오거나 결혼이나 일자리 등을 찾아서 충남으로 이동한 경우임
-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한 경우는 수도권 생활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례임. 또 다른 참여자는 산재사고로 인해서 건강이 크게 나빠지고 장기간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의지할 곳도 없는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생활비도 적게 들고 익숙한 고향인 충남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음

“최소한 저는 여기서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내려온 거니까 말하자면 내려놓고 내려왔어요. 거기서 네 많이 그 결혼도 그렇고 가진 게 없으니까 몸은 아프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제 이제 내가 몸이라도 성해야 벌어먹고 사는데 몸이 선창아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여기 내려와서 사는 삶이 좋아서 내려온 건 아니고 네 위에서도 의지할 때도 없고 몸은 힘들고 그리고 일하기도 그렇고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지만 되니까 그렇죠 몸이 힘들어도”(P1)

“내가 이제 서울에서 워낙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지방 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일자리 알아보다가 내가 원룸에서 쓰러져 가지고.” (P8)

- 다음으로 수도권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고향이 아니지만 귀농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서 충남에 정착한 경우도 있었음. 한 참여자는 이혼 후에 충남에 사는 친구의 권유로 농촌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동했다고 진술함

“여기 시골 친구가 여기 이제 귀농을 해갖고 저기 지내고 있는 지가 한 15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친구 권유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케어하면서 같이 농사를 농업을 좀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P2)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어요... 저희는 낮에 부터 이제 연주하고 했으니까 기타 치면서 이렇게 연주하고 섹소폰 들고 연주하고 하니까 손님이 제법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와갖고 생활을 하 하는데 이제 여인이 생겼지.” (P3)

(2) 경제 생활: 부족한 일자리, 수급비 생활, 빚 독촉

-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장년이지만 모두 정규직의 상근직은 갖지 못하고, 대부분 무직의 상태였음. 일부는 가끔씩 운전, 배달, 식당 보조, 연주, 노래방 도우미, 농사보조 등의 일을 한 적도 있지만 그나마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일이었음
-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수입의 주요한 원천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적은 수급비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음. 더욱이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으로 빚 독촉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었음. 이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로 인터뷰 참석자들의 대부분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 한 여성 참여자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횡설수설하고 일관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외부인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보여서 정신질환이 의심되었음. 하지만 그녀는 현재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노래방 도우미 업무의 지속성의 어려움을 느껴서 미용과 같은 다른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혼자서 생활하는 가운데 공과금과 세금 등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높은 것 같았음

“지금 앞전에까지 큰 저기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이거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했었어요.... 제 나이도 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쪽으로 그냥 말 그대로 푼돈일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런 데서는 모르겠지만 불법인 건 아니지만... 또 상대는 남자고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술 마시면 그런 걸 다 비유를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엇그저께도 여기 지금 월세 내는 날이라 또 돈 내서 월세 내고 하니까는 그런 걸로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저기 수시로 이렇게 이력서 넣고 일자리는 알아보고, 이렇게 알바 천국

핸드폰 보고 맨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어요.”(P6)

-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일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인처럼 장기간 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많이 나쁘거나 중장년으로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이나 기술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장루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취업 그걸 알아보려고 저희 동사무소에 갔었어요. 얼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해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서서 하는 일이 많대요. 근데 나는 나한테는 복지사 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위험하니까. 안 좋다고 권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저기 아는 언니네 반찬가게 했을 때 좀 도와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솔직히 조금 저기 아는 언니네 반찬가게 했을 때 좀 도와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저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면 이게 배출이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었던 그게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한 번 싹 빠져버리면 옅고 혈색이 변해요. 하해져”(P8)

- 일부 참여자들은 충남의 농어촌 지역은 일자리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음. 농사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국한되어서 도시 지역에 비해서 더욱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음. 특히, 농사 관련 일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더욱 적고 농사 업무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음. 수입도 소작농을 지원해서는 어렵다고 진술하였음

“지금 A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쵸 없어요. 농업도 없어요. 농업도 이제 농업도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인력 사무실을 나가면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이제 인력 사무실 나가면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 데도 나가고 다른 데도 나가고 하는데. 여기는 인력 사무실 나가면 다 농업 쪽으로 일을 나가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수업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 제일 할 줄 아는 거고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운전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 쪽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도 자리도 없고... 이제 농업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요. 수입이 없어요. 이제 농업이라는 게 수입이 정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대농 진짜 대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입이 없어요. 특히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봄에 저기 작업 시작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수입이 없어요.”(P2)

- 한부모로 혼자서 아이를 육아하는 한 참여자는 일용직으로 인력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새벽이나 아침, 주말, 방학기간 등에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체제와 사적인 지원체제가 부재해서 경제활동도 제약된다고 말했음. 육아지원체제가 부족해서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한부모로 지낸다는 게 아이를 더군다나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제 일용직이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 시작해서 초반 정도에는 이제 중반 정도까지는 돈이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오전까지만 9시부터 12시까지만 방학 중에.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를 가 케어가 안 되니까 맡길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또 방학 후반부 들어가면서부터는 돌봄 교실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를 맡길 데가 없고 방치를 할 수가 없죠.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혼자 봐줄 수가 없어서 아이가 지금 뭐 방학 때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P2)

-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친척이나 친구 등의 타인 등을 통해서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었음. 그러나 수급비 액수 자체가 최대금액이 70-8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므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특히, 물가가 급등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식비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음.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수급비가) 부족하죠. 어 여기 월세가 거의 40만 원 돈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진짜 일이 없고 나도 계속 돈이 있는 걸 까먹고. 통장에 돈이 여기 자동 이체가 돈 나갈 것도 있고 내 해야 할 돈이 있지만 나갈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진짜 가끔씩 저기를 또 나가는 거예요. 밤에 밤 알바를.(P6)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주머니 때문에 장루 때문에 좀 딸리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서 63만원 나오면요 내가 수중에 가져보는 돈이 별로 없어요. 맨날 계산이 나와 있으니까.”(P8)

- 인터뷰 참여자들 중 일부는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계속되는 빚 독촉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음. 빚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본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한 참여자는 낯선 사람에게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추심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음. 이는 외부와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저기 돈 없어도 이제 뭐야 대출은 미납된 게 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전화 오면 돈 왜 안 넣느냐 뭐 그런 전화만 오니까 그래서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 이유가 나. 돈 없어서 못 내요. 그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내가 돈 없어서 못 내요 그러면 나는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돈이 수일 내로 수달 내로 얼마 벌린다 그런 얘기도 감히 짐작도 안 되고 거의 못 본다는 그런 생각만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오늘 못 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낼래요? 거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며칠까지 내지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못 내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언제까지 될 거야 언제까지 될 거야 그런 얘기만 계속하니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웬만해서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빚독촉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뭐 일 일로 관계돼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그 그런 전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저기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못 받는 거야.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받으면 힘들거든. 힘들죠. 차라리 안 받으면 그럼 그걸로 끝..."(P1)

-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빚을 탕감 받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개인간의 채무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개인 채무는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줄 수도 없고 이분이 다달이 얼마씩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안 된대요. 개인 채무 근데 제가 개인 채무가 두 군데 정도 있어 가지고.”(P2)

(3) 건강 상태: 관리되지 않는 각종 만성 질환

- 인터뷰 참여자들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중장년이라는 연령을 고려할 때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았음. 일반인처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전반적인 건강이 나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임
- 특히 암이나 내부 장기의 수술을 받거나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할 위험이 있는 중장년도 있었음. 건강은 다양한 원인들이 누적된 결과로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정한 일자리, 후술할 협소한 사회적 관계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소수의 중장년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급성기 질환을 겪고 있어서 질병 발병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장 기능이 30%밖에 작동되지 않는 한 참여자는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병원에 입원해도 별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최근에도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고 진술함. 그는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방법과 상황 등을 작성한 서류를 몸에 늘 지니고 다니고 있었음

“제가 병원 들락거리면서 그러다가 코로나 백신 맞고 심장이 망가지면서 모든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심장이 망가진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심장암은 그걸 떼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제 심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러니 그게 이상한 통증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는 요즘 전화기는 좋아서 이걸 좀 안 좋은 전화기더라도 저기 옆에 파워 버튼만 계속 누르면 자동으로 긴급 연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심장병은 그럴 시간이 없어... 본인이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옆에서 딱 누가 지켜보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는 한은... 병원에서 해줄 게 없대요. 치료 방법이 없대요. 심장 이식 받기에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거기다 병원에 가 있으면 뭐해요 약도 그러면 제가 입원을 하면 약이 틀려집니까? 했더니 약도 바뀌는 게 없대요. 제가 이걸(유서와 긴급조치사항) 안 갖고 다니다가 저번에 7월 6일날 한번 또 쓰러져서 이걸 어쩔 수 없이 갖고 다녔는데”(P4)

- 둘째, 각종 장애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등과 같은 만성기 질환을 갖고 있어서 생활에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듯이 만성기 질환은 급성기질환과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만성기 질환에 대해 적절한 식습관 관리, 약 복용, 운동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건강이 조기에 악화되고 복합 질환을 겪으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됨. 인터뷰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젊을 때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음

“제가 당뇨가 여기 내려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전 내려오기 전부터 있었어... 요새는 여기 내려와서는 한 번 병원 가보긴 했었는데 그때 잠깐 (약을) 먹고 거의 안 먹고 살아...저는 1월에 솔직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제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빨개지고 충혈되고 그래서”(P1)

“(건강이) 많이 안 좋고 당뇨가 너무 심해. 인슐린 주사 맞을 정도인데...”(P9)

- 셋째,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쁜 경우도 있었음. 빈곤, 신체적 건강 악화, 외로움으로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이 정신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고립감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그 양상을 살펴보면, 잠을 못자서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안감이 엄습한 경우도 있었음. 한 참여자는 과거에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인지기능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함. 힘들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복합적인 건강의 악화로 인해 하루에 약 20알의 다량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알코올 중독이고 불안감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생활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막 또 힘들면 더 그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부터 하루에 열두 번은 다 했지. 그때부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신경정신과 약만 빼고 3회 알 정도 되죠 그 총 한 1 신장내과 약은 한 5개 되고 신장과 밤에는 한 3개 4개 낮에는 오전에는 15개 6개.. (하루에 총) 20개 되는 것 같아요.”(P9)

“우울 같은 거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증상이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해도 잘 죽을까 진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질병으로 죽건 사고를 죽을 건가는 모르겠지만. 죽는 것도 죽 잘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솔직히 자다 일어나고 그러면 막 괜히 허무하게 하고 진짜 아플 때... 막 죽고 싶고 우겨가지고 막 눈물 나고 막 밥도 먹기 싫고 그러는데”(P6)

“화장실 갈 때마다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저 수십 번... 그래서 우울증도... 우울증이 2019년도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겨냈죠....그냥 이것만 보면 막 죽고 싶고 우겨가지고 막 눈물 나고 막 밥도 먹기 싫고.. 이제 장루(장애) 때문에 제가 막 우울한 게 많아요. 겉으로만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죠.(P8)

(4) 사회적 관계: 단절된 가족, 친구의 관계망

- 인터뷰에 참여한 중장년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심각한 축소를 경험하고 있었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일을 통해서 만난 2차적인 관계는 상당 부분 부재한 것으로 보였고, 가족·친척·이웃 등과 같은 1차적인 관계도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고립된 중장년에게는 1차 관계가 그나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결혼을 통한 가족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고, 일부는 형제·자매와의 교류가 미약하지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고향 친구나 지역사회서 만난 이웃이 소수지만 있는 경우도 있었음
- 첫째,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말함. 배우자와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혼 후에 자녀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매우 크게 나타남. 자녀가 이혼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동거부모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엄마와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자녀와 헤어지는 과정을 가슴 아프게 설명함. 그러면서 더 이상 자녀와 카톡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을 큰 고통으로 느끼고 있었음

“그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다 녹음이 돼 있거든요. 아기가 뭐가 미안해 몰라 엄마 아빠가 그런...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이제 아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빠는 죽는다고 그러지 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살아야 되죠 어

저도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빠 미안해.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아기가 결정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거야 그렇지.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그래서 그래 그럼 아빠는 너는 잘못된 거 없지만은 그래 미안할 것도 없고 니 결정을 아빠는 그대로 믿겠다...그러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도 갑자기 사진도 다 없어지고... 아기 사진이.... 카톡을 해도 대답도 없고 문자로 해도 대답도 없고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아기가 아빠 차단을 걸었다고.... 근데 아기가 차단할 필요까진 없는데 아빠 가슴 아프게 차단할 필요까진 없는데”(P4)

- 다른 참여자도 이혼을 당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지난 2018년 이후로 딸과의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딸을 보고 싶어서 이혼한 시택에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면서 자녀를 만나지 못했고, 현재까지 연락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음

“지금 딸하고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애가 5살에 헤어졌어요. 전라도 아버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것도 2018년도인데 그 시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또 다툼, 다툼이 있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니 못 데려가게 하니까는 저기도 혼자 나가라는 식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짜 좀 스토리 같은... 시택을 찾아가서 가봤어도 아이도 못 만났고 한 번도 이후로.”(P6)

- 둘째,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교류가 지속되면서 중장년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형제와 자매도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충남 고향으로 내려온 한 참여자는 여동생이 노숙인이 되어서 낯선 남자와 함께 집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진술함

“위에 부모님은 다 보냈고 그리고 형제 중에도 상태가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형은 알코올 중독이고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은 망상이에요 망상장애예요....(여동생이) 노숙을 했데요. 그거를 작년에 여기 오고 나 한참 망가 경제적으로나 힘들 때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나도 먹고살 돈도 없고... 같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55-60세 이상 먹은 사람도 있네요. 남자가 키 좀 작아가지고 뭐 자기 말로는 뭐 젊었을 때 부동산도 했었고 해서... 와서 이제 요 제 상황이 누군가를 보듬고 도와주고 저 쪽으로 해줄 여력이 없어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나는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얘가 상태가 이상한 거야.”(P1)

- 이처럼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족이나 형제·자매간에 갈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떨어진 상황에서 형제 자매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가족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달하게 된 것임

“우리 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그 형부가 나타나면서 또 언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안 풀기 시작한 거예요...그랬더니 뭐라고 지시를 하는지 언니랑 나랑 사이가 멀어지더라니까요...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P8)

- 이처럼 가족, 친구, 이웃 중 1차적인 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나 혼자 밖에 없구나”라는 실존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일부 참여자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친인척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 참여자는 이혼 후에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음. 이처럼 가족이 도와주는 것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 것으로 나타남. 다른 장애가 있는 참여자도 형제가 반찬을

배달해주는 등의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막둥이가 그러니까 형 안 놓치려고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문자를 보내고 또 이제 동생이 용돈 하라고 돈도 주고 저 나라에서 나오는 거 조금 남으면 그것도 모아가지고 아기(자녀)한테 보내고 그랬거든.”(P4)

“(반찬을) 누나하고 형님이 갖다 주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갖다 주세요... 친형제하고만 친하고.”(P5)

- 넷째, 일부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친구나 이웃과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임. 임대주택에서 인근에서 사는 이웃 누나와 교류를 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만난 언니와 근방에 살면서 교류하고 있는 것임. 이들에게 있어서 가깝게 사는 소수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혈연에 기반한 가족보다도 더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보였음

“(이웃) 누나는 다른 우리 친척 누나가 보도 더 잘해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면서 하니까 지금 누나는 내가 좀 잘 다닙니다.”(P7)

“우리 요양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지... 우리요 일주일 우리 언니는 맨날 봐요... 우리는 일 안 하면 눈 뜨면 커피 마시고 둘이 얘기하고... 내 커피 타서 먹고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래 하루라도 하루라도 안 보면은 이상해요. 서로 걱정하는 거죠. 서로 걱정하는.”(P8)

(5) 복지 이용 경험: 미흡한 통합사례관리와 중장년 사업 이해 낮음

●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복지 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섭외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었음. 이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급자로서 현금 급여뿐만 아니라 쌀과 김치와 같은 각종 후원물품까지 받고 있었음. 그러나 이들이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일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첫째, 공무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물론 이용자의 일방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가장 고립된 중장년 40대 남성은 신용회복과 일자리 등 가장 다각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보였지만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뤄지고 있었음

“그냥 깊은 얘기는 상담은 안 했던 것 같아.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기초 수급 이거나 복지에 관해서) 그쪽에서도 크게 자세하게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저도 물론 이제 생활이 어렵고 당장 그만쯤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P1)

● 둘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은 중장년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중장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서 공적인 지원을 받으러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진술함. 특히 일선 공공 창구에는 담당자들이 공직 연차가 어린 직원인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상담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 등의 안내와 소개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함. 이는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공적인 전달체계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결국 각종 지원의 접근을 스스로 차단해서 사회적인 고립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제가 읍사무소에서 만나기 싫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읍사무소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담당 직원들이 너 제가 아직 젊음, 젊다고 보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수치스럽고 좀 모욕적인 그런 저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읍사무소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 아까 군청 직원분하고 상담할 때도 차라리 군청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군청으로 가겠다. 근데 읍사무소는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담당 복지팀 담당 직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좀 많으신 이제 이제 직책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저기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희 같은 일반 민원인들하고는 상담을 안 해주시죠. 그래갖고 이제 막 부임하시고 이제 경력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모르세요. 그냥 뭐 여쭙보면은 매뉴얼 책 펴놓고 그것만 그대로 읽어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융통성이나 유도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FM대로만 책 보고 책에 있는 대로만 가르쳐 주니까 그거는 저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저도. 그런 내용은 미리 숙지를 하고 왔고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쭙보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안 주시고 똑같이 계속 책 펴놓고 그 얘기만 해 주시는 제가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그 서류 정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쭙봤었거든요. 근데 전혀 완전히 그냥 뭐 일반 분이나 다름이 없어요.”(P2)

- 셋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빗이 많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사업의 대상자에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1-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 참여자는 긴급지원도 2주 정도나 걸렸다고 진술함

“어려우니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또 서류 하면 한 달 반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면 10월달이잖아요. 한 달 반 걸린다고 하면. 지금 당장 힘든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서류 접수하고 그런 처리되는 과정 이런 게 너무 길더라고요.... 긴급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먼저 선지급 후 신설하고. 담당자가 어리석하거나 뭐 좀 이렇게 깐깐하신 분이거나 하면 뭐 일주일에서 많게는 열흘 넘게도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한 2주 정도 걸렸어요.”(P2)

3) 생활의 필요사항

● 인터뷰 참여자들은 생활에서 필요하거나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크게는 경제적인 부분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건강에 대한 지원, 이동지원과 같은 복지 급여,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녀와 같은 의미 있는 관계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술함

● 첫째, 인터뷰 참석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 좋고 현재의 경제적인 측면이 수급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음. 정규직이나 장시간의 근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짧은 시간에 힘들지 않은 소일거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함. 중장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저기 솔직히 별금 때문에 물론 이제 일이 있으면 먹고 살려면 뭐 불법을 해서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P1)

“이렇게 찌게 깎고 쓰레기 담는 그런 거라도 해줬으면 그거를 좀 해면은 수급비가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 여기 수술하고 나니까 진짜 힘든 일을 못하고 그렇죠. 좀 쉬운 일 같은 거는.”(P8)

● 이처럼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요구했다. 참여자들은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 등을 희망했음.

한 여성 참여자는 미용과 관련된 일자리를 갖기 희망했고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싶다고 밝혔음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과정을 진짜 학원도 맡고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돌머리인지 필기는 솔직히 연습을 필기 처음부터 저는 거꾸로 배웠거든요. 이거 학원을 받는 것보다도 알바 가서 이렇게 처음에 머리 감겨주고 바닥 쓰고 머리카락 쓰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손님 머리까지 다 만족했던 말이에요. 2017년 18년도에서부터 강화가 된 거예요. 면허증이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빼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솔직히 이거 실습으로 손님 머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근데 머리가 안 떨어지니 필기에서 맨날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교육과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해주면은 훨씬 더?)...예. 자립할 수 있고”(P6)

- 둘째,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대상자들은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음.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 상당한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건강을 정상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움

- 하지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음. 중장년의 건강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만성기 질환은 방지할 경우에 각종 복합 질환과 급성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환을 잘 관리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제가 지금 건강상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그런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진 혜택을 받고 싶은데... 건강만 좀 괜찮아지면 다시 많이들 못 별터라도 그래도 저기 나와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제가 집에만 있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P2)

“열심히 사는 게 맞는데 소원이 더 장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그래서

여기서 더 심하지는 않고 건강만 유지하고 살고.”(P8)

- 셋째, 이혼으로 자녀와 헤어지게 된 중장년들은 자녀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단절된 가족관계이지만 배우자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느껴졌음. 한 여성 참여자는 본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고 바로 떠나버린 자녀를 만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함. 이 여성참여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었지만 뜨거운 모정을 느낄 수 있었음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것도 또 너무 과하는데 너무 제가 앞서는 말을 많이 해요. 혼자 말대로 망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말대로 이런 것까지는 원치는 않지만 말대로 더 애뜻한 집에 딸이 하나 있잖아요. A라고... 성도 솔직히 이씨로 바뀌가지고 A로 해서 솔직히 내 딸이랑 오붓하게 사는 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제일 간절한 소망이고 그게 원하고 바라는 거.”(P6)

- 한 중년 남성은 단순히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끈”, “희망”이라고 말했음. 그는 자녀와 함께 살던 집의 아이방의 인형과 물건 등을 그대로 두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임. 세월호처럼 갑자기 사망한 자녀를 기다리는 경우에 물건을 그대로 둔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살아있는데도 이혼으로 만나지 못 나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음

“아기가 쉽게 말해서 5학년 때 네 5학년 때 인형을 놓고 간 걸 그대로 제가 안 움직이고 놔뒀어요. 언제 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런 알박한 그런 기대 기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저를 살게 할 수 있는 끈이더라고. 유일한 끈이에요 유일한 끈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집은 없애지는 못하고 왜 그러냐면 나도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마음속에 의지를 하고 저기 가면

그래도 뭘 희망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놔두게 저 집이거든. 그 희망이라는 게 뭘냐 아기가 한 번이라도 지나가더라도 보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베란다 쪽에 이제 물건이 이렇게 적체돼 있으면 그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그 희망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위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고”(P4)

●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 참여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인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였음. 자녀와 함께 살던 공간이 ‘마음의 고향’이고 아이를 우연히 라도 한번 보는 것이 삶의 ‘희망’이라는 것임. “그 희망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말 속에서 삶의 무게만큼이나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넷째,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동지원과 주거와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하나인 주거의 필요성을 언급함

“나는 장애인이 안 돼서 아니라서 버스 카드 복지가 안 된다는데 이제 말을 했어요. (P9)

“코로나 이후로 버스 편수도 줄고 노선 수도 줄고 그리고 이제 주로 자기 차를 갖고 다녔던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차도 없고 이 버스 타려.”(P1)

- 귀농으로 내려온 한 남성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여성은 여성을 위한 안전 잠금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함

“사람이 사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집, 집이 가장 중요한 거지”(P2)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막 흔들리고 문이 누가 자꾸 당기는 분이 이 불고 이제 바람이 되는 건데...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어젯밤에 뭐가 갑자기 그런 소리가...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 가지고 방문을 잠갔어요.”(P8)



제5장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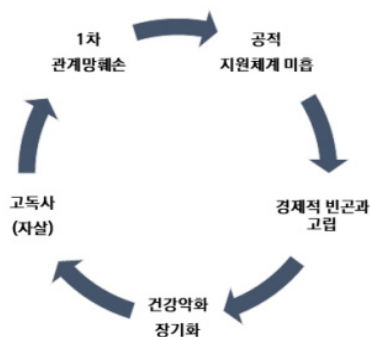
1. 연구결과 종합
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제5장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종합

- 본 인터뷰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자리의 부재로 인해 빈곤이 만성화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수급비의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는 존재하였음
-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상태로 장시간의 정규직을 갖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더욱이 일부는 장애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기적인 단시간 근로도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경제활동을 통한 2차 관계는 사실상 부재했고, 가족·친척·이웃과 같은 1차적 관계망도 심각한 축소가 발생했음.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된 상태로 보여짐
- 본 연구결과, 충남에서 중장년 고립자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상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1차적 관계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은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장기화로 가고 이는 다시 고독사·자살로 이어져 무연고 사망자’로 이르는 악순환의 덫에 빠질 우려가 있음. 이에 충남도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중장년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



[그림 5-1]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수레바퀴

2.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1)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 충남지역 중장년 고립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함. 본 연구를 통해서 충남지역에도 광범위한 중장년 고립가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연구와 소규모의 인터뷰라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중장년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를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저성장구조의 고착화와 사회의 개별화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약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될 것이므로 그 필요성은 크다고 봄. 특히 중장년은 그간 사회복지 제도의 큰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절실함
- 공주시는 중장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인천시의 경우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5060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2023년 진행하였음.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근거기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도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사례]

▶ 인천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5060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비중이 높은 만50~65세 미만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시사상조신문

<https://sisa5992.tistory.com/3913>

▶ '고독사 예방' 울산 동구,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울산시)

-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
- 조사대상은 만 4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동구 1인 가구 270세대



출처: 뉴시스

<https://v.daum.net/v/20231212101350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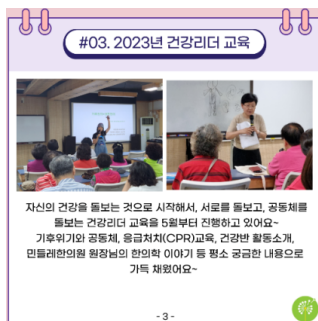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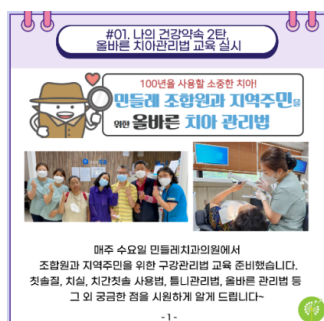
2) 지역단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 개발 및 확산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중장년 1인 가구의 욕구가 분석된 후,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중장년 고립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장년들은 일자리와 같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욕구는 긍정적인 것으로 이들의 의욕과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각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실화되어야 함. 특히, 중장년의 건강이 나쁜 사람이 고립된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대적인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소일거리나 공공형 일자리의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함
- 구체적으로, 종합복지관을 중장년을 위한 대표 제공기관으로 확충하거나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의 지역단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령,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리더 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이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사회적 관계망도 확충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사례]

▶ ‘대전 만들레 의료사회복지협의회’

- 건강리더 교육과 방문진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과진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건강반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자조 모임으로, 나와 이웃과 마을의 건강자치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소규모 건강생활 공동체임



시사상조신문(<https://sisa5992.tistory.com/3913>)

3) 자활센터 연계한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이와 함께, 기존의 자활단체의 사업을 고도화해서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요구됨. 아울러, 중장년 중에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복지관 같은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같은 보건영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한 중장년 1인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공전달체계에서 중장년 대상자에 대한 발굴 및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와 제공 등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함. 즉,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사업을 체계화해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복합적인 위기와 고립에 처한 중장년을 위해 경제, 건강, 돌봄, 사회적 관계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가령,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중장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임.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에서 중장년에 적합한 형태의 통합사례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5) 읍면동 주민센터 인력 배치

-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의 인력배치와 업무 문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대로,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이 일선창구에 배치되면서 중장년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적합한 공적인 보건의료와 복지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1) 중장년에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일선 창구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일선 창구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보편화가 되어있어서 잘 알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 사업은 그 숫자가 적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함
- 2) 중장년에게 친절하게 대화하고 상담을 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본 연구결과처럼, 중장년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끄럽지만 용기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무안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험을 겪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3) 복지 사업의 신청 후 수령시까지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빈곤한 상태에서 복지급여의 수령 여부는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적지원임.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신청 후에 선정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중장년들은 느끼고 있음. 가령, LH의 주택은 실제 이용까지 2년 걸리기도 함.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제 신청 후 이용기간을 파악해서 LH와 같은 중앙정부의 사업은 개선을 요청하고, 특히 충남 지자체가 재량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사항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 시스템에 중장년이 신청하면 대상자가 체계적으로 결정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고립된 중장년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서 고독사와 자살 등의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평가할 때에 중장년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실적 등을 정량 평가지표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중장년의 초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공적전달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중장년이 공적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발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임. 가령, 수원시에서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로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포함시키고 있음

참고문헌

- 경기도.(2023).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9705
- 고은아. (2023). 중장년층 1인가구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4(3). 3663-3677.
- 고아라, 정규형, 신보경. (2018).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9. 55-79.
- 노경혜, 노혜진, 정혜원, 유혜인. (2023).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연구.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수진, 김세영. (2013). 중년여성의 부부친밀감, 우울과 갱년기 증상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76-187.
- 김윤영. (2018). 1인가구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3), 1-30.
- 김주연. (2017). 한국 노인의 가구형태 가구 내 자원분포: 사회적,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0(1), 1-28.
- 김춘남. (2018). [정책제안] 실질적인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해야. 월간 공공정책, 150, 59-61.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 박승곤. (202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187-219.
- 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한국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21(2). 41-73.
- 박해금, 윤기혁. (2023).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중장년 1인가구 언론보도 기사 분석.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9(4). 49-58.
- 배은석, 박상미, 박해금. (2022). 1인가구 주민의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2). 79-111.
- 송승연. (2016). 중장년층의 사회적 배제,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4(3), 64-92.
- 여종일. (2019).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우울증상,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65-90.

- 오정아 외(2022).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 방안
- 이상철. (2017). 농촌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비교 분석. *사회복지연구*, 48(2), 143-171.
- 이상철, 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이명진. (2019). 유럽의 1인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 16-26.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상철, 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이석환, 전용호. (2022). 코로나 19 시기 노인의 우울감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7(4), 91-115.
- 임소현. (2022).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 50+리포트. 33. 1-6.
- 장향채. (2018). 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4), 23-46.
- 최유정, 이명진, 최섫별. (2016). 가구형태와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25-51.
- 경기도 1인가구 포털 (<https://www.gg.go.kr/lingg/main.do>)
- 경기도 홈페이지_분야별 정보_경기도민복지_1인가구지원사업(2023.9.검색).
- 보건복지부(2022.12.14).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27&dist_no=374084&seq=2
-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2023). [https://www.law.go.kr/자차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4225,20170228\)](https://www.law.go.kr/자차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4225,20170228))
- 충청남도 노인복지기본조례 (2023).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6%A9%EC%B2%AD%EB%82%A8%EB%8F%84#>
-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6%A9%EC%B2%AD%EB%82%A8%EB%8F%84>
- 충청남도 (2023.1.17.).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mu_url=/cnbbs/view.do?board_seq=426421&mmu_cd=CN

- MENU00915&searchCnd=0&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477
- 천안시 (2023). 2023 주요업무 계획
https://www.cheonan.go.kr/kor/sub04_02_02.do
- 공주시 (2023. 1.15). https://www.gongju.go.kr/prog/saedNews/sub04_02_01/view.do?newsEptNo=15281
- 보령시 (2023.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https://www.brcn.go.kr/cop/bbs/BBSMSTR_000000000264/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264&nttlId=172722&isExpired=N
- 서산시 (2022.12.22). 2023년 주요업무계획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8&bbsNo=106&nttlNo=287618&searchCtry=&searchCnd=all&searchKrwcd=&pageIndex=1&integrDeptCode=>
- 계룡시 (2023.2).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계룡시.
- 당진시 (2023). 2023년 주요업무계획
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_000000000012/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2&nttlId=1099450
- 서천군 가족센터 <https://seocheon.familynet.or.kr/center/index.do>.
- 보령시청 <https://www.brcn.go.kr/kor.do>
- 충남일보(2023.12.28). 계룡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http://www.chungnamilbo.co.kr>)
- 대전일보(2022.12.6) 예산군, 신중년 사회공헌 자원사업 지역사회 호응
<https://v.daum.net/v/20221206145654099>
- 충청일보(2022.9.14). 금산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금산바음쓰담톡' 운영
(<https://www.ccdailynews.com>)
-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 쌍글방글서울
- 서울시복지재단 (2022).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복지재단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2022.2). 주요업무보고 제30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_분야별정보_1인가구'쌍글방글서울'(<https://lin.seoul.go.kr/>)
- 이뉴스24(2023.9.4). 서울시, '안심아플 기능 강화한다. <https://v.daum.net/v/20230904114054059>
- 조선비즈(2023.9.20). 안심마을 보약판, 다음달부터 신림동 추가.. 무차별 범죄 불안 줄인다.
<https://v.daum.net/v/20230920151622796>
- 뉴스 1.(2022.3.24). 서울시,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대상자 '안심장비 3종 지원'
<https://v.daum.net/v/20220324111518244>
- 뉴스1 <https://v.daum.net/v/20231212101350673>
- 서울특별시 포털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0103/><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0098>
- 사상조신문 <https://sis5992.tistory.com/3913>

경상도 뉴스 <http://www.ynews.kr/news/view.php?idx=15088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30810002900353>
부산광역시 (2023). <https://www.busan.go.kr/index>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_1인가구 지원(2023.9.검색)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3). 2023년 1인가구를 위한 조합정보안내
<https://bsfc.familynet.or.kr/center/index.do>.
부산광역시 장노년알자리지원센터 50+포털 (2023.9. 검색).
<https://www.busan50plus.or.kr/education/order>
통계청. 장래추계인구(2020~2040년), 가구주의 연령·성/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5
통계청 (2020. 11). 『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서(1인 가구비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3).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060100&bid=218&tag=&act=view&list_no=427216&ref_bid=
통계청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8414&ref_bid=
통계청 (2021).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

정책연구보고서 23-4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발행인 | 조경훈

발행처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지은이 | 오정아, 전용호, 김윤영

발행일 | 2023년 12월 11일

인쇄일 | 2023년 12월 11일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연락처 | 041-330-2400

© 2023 CNWF

-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전재 및 발췌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